

6월산

설화



| 발간사 |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겠지 하는 기대와 달리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지난 1년 동안은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와중에도 계획하였던 문화학교 강좌,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문화가 있는날 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비롯한 모든 사업들을 아무 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다소의 일정 변경과 규모의 축소, 진행 방법의 변경 등은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북카페, 밴드실, 스마트베뉴실, 동아리실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새로운 시설들을 조성함으로서 군민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쾌적하게 생활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영화관도 중단없이 운영하여 군민들께서 수준 높은 영상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1년간 우리 예산문화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한데 묶어 ‘예산문화 5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문화 55호에는 충남학, 예산학 등 인문 강좌의 강의자료와 우리 문화원 직원들의 글들도 실었으며, 금년에 이루어진 축제, 행사, 사업 등의 사진들을 생생하게 실어 먼 훗날까지 우리 문화원의 일들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산문화 55호가 예산문화원 역사의 일부가 되어 예산문화원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고 문화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김종옥

발간사	1
지역학 칼럼	
예산학	
예산의 선비정신과 현대사회	4
예산의 여성문인 南貞一軒(1840~1922)의 삶과 품격	18
충남학	
조선 후기 충남의 3人3色 여성 한시	37
충청지역 기독교의 수용과 발전	57
예산 문화원	
직원의 글	
열심히 노력한 보람있는 삶	74
나의 문화원이야기	80
첫 프로젝트 : 옛스러움을밟다 땅.짚.다	82
이모저모	
2021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	84
2021 예산시네마	84
2021년도 사업회계감사	85
대백제부흥군위령제	86
동제	86
문화학교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출전	88
문화학교 전시회	90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90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91
자암김구서예대전	92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93
추사휘호대회	93
충남학 및 예산학	95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98
회의사진	98
직원수상	101

예산의 선비정신과 현대사회

황의동(충남대명예교수)

1. 현대사회의 빛과 그늘

(1) 물질적 풍요와 인간소외, 윤리적 위기

과학의 발달은 기술의 개발을 가져오고 이는 생산의 증대와 편리를 가져다 주었다. 이로 인해 인간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본래 자연 본능적인 욕구욕망을 소유하였다. 이 욕구욕망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동서양 철학에 있어 늘 문제였다.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인간은 이 욕구욕망을 극대화함으로서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물질 즉 경제는 인간 삶에 기초적 의미를 갖는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를 벗어나 보다 많은 富를 요구하는데서 문제는 발생한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노력한다.

현대사회는 개인은 물론 국가,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가 優位를 점하고 있다. 저마다 경제적 부의 축적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인간을 위한 돈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사는 인간이 되어 버린다. 돈을 벌고 돈을 지키다 죽어가기도 한다. 남의 돈을 빼앗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인간성을 포기하고 만다. 인간이 상품화되어 장기매매가 이루어지고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人格이 物格화되고 인간이 돈의 수단적 가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本末이 顛倒된 인간 삶의 행태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되고 인간의 非人間化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성의 상실이요 인간소외현상이다.

또한 물질 만능의 풍조속에서 윤리적 위기를 맞고 있다. 윤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윤리를 알고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인간은 윤리를 통해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며,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점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물질적 利害에 빠져 윤리도덕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 부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윤리적

정당성을 돌아보지 않는다. 물질적 풍요의 뒤안길에 드리운 인간성의 상실과 윤리적 위기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첨단과학기술의 편리와 인간소외

현대사회는 과학이 이룩한 높은 탑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은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다. 과학을 통해 현대의 문명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의 위대함, 과학의 有用性, 과학의 공헌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과학은 인간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우주경영의 주체라 함은 과학으로 입증된다. 이제까지 과학이 이룩한 성과는 실로 驚異的인 것이다.

과학은 觀賞과 神秘의 대상이었던 달과 별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달을 따러 가고 별을 따러 가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달은 神의 능력을 비웃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생명의 변화를 전망케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개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무한의 역량을 예고한다.

이와 같이 과학의 혁명은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무한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저마다 각국은 과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과학이 곧 국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과학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반드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대과학은 그것이 이룩한 위대한 탑 이상으로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도 많다.

그러면 현대과학의 발달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과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과학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요 도구적인 것이다. 과학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사용된다. 인간이 善意志로 사용하면 과학은 인간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지만, 반대로 惡意志로 사용하면 과학은 인류에게 害惡을 끼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의 문제로 돌아 가지 않을 수 없다. 핵에너지, 생명공학, 반도체 공학 등 첨단과학의 성과는 실로 인간의 행복을 약속해 주는 유용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인간세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과학의 인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과학은 무엇보다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안녕,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과학의 오만은 인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을 위한 과학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인간이 과학기술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 인간이 과학기술의 수단적 존재로 전락하여 비본래적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다. 이 역시 主客의 顛倒현상이요 本末의 顛倒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 그 자체는 윤리적 기초위에 발전되어야 한다. 과학만능의 오만으로 치달을 때 인간성의 파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복제인간의 문제나 이른바 ‘사람공장’의 출현을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과학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고 있는 인간소외문제, 과학의 윤리성문제, 과학의 인간화라는 문제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3) 신에 대한 믿음과 동물사랑의 뒤에 드리운 인간소외

현대사회에 있어 인간의 疎外현상은 神중심주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의 인간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종교적 행태에 따라 신앙 생활을 하는 인구가 적지 않은 듯 싶다. 그것은 특정한 종교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狂信, 盲信, 迷信의 행태에서 인간성의 위기를 볼 수 있다. 일부 광신도들의 집단자살, 이른바 휴거파동, 신앙을 빙자한 가정의 파탄, 獨尊주의에서 오는 종교적 배타성, 이로 인한 미움과 갈등, 나아가 전쟁의 살육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그들에게는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신이 문제다. 신에 대한 맹목적인 승배, 절대적인 헌신만이 인간의 길이요 행복이라고 믿는다. 신을 위해 인간의 길을 포기한다. 신 때문에 인간다움을 상실한다. 신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게을리 한다. 신 때문에 인간의 할 일을 放棄한다. 이것이야 말로 신에 의한 인간소외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신도 인간을 위한 신이어야 한다. 오늘의 현대사회에 있어 神絕對主義 내지 神至上主義는 인간을 수단화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인간성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계되고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는 동물에 의해 인간이 벼림받고 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 동물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가족들이 소외되고 있다. 개나 고양이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해 주고, 먹이를 잘 먹지 않으면 안심 등심을 사서 봉양한다. 자신의 늙으신 부모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개나 고양이에게는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다. 동물들을 사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들에 의해 벼림받고 소외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방송매체도 아무 반성 없이 이러한 동물 애호를 조장하고 있다.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21세기 복지 국가를 운운하면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반으며 산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닌가.

2. 선비정신이란 무엇인가?

유교는 매우 유용한 가치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비록 한자의 형식으로 전달되지만 매우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예를 들면 仁, 義, 禮, 智, 信, 誠, 敬, 忠, 忠恕, 紲矩之道, 中庸, 君子, 王道, 大同, 陰陽사상 등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선비정신은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재음미해야 할 유교의 유산이다. 이제 유교의 선비정신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본래 유교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聖人, 君子, 大丈夫, 士, 志士, 仁人, 道學之士, 處士, 儒士, 眞儒 등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의 개념 차이는 있을지도 크게 보면 상통하는 개념들이다. 성인은 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究竟地로서 天人이 합일하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을 제외한 나머지 용어들은 모두가 유교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특히 조선조 사회는 유교사회였고, 문화도 유교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유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추구해 왔고, 교육에 있어서도 그 목표가 되어 왔다. 군자, 지사, 도학지사,

처사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모범적인 인간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비라고 부른다. 조선조의 유교문화는 곧 선비문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비정신은 조선조를 일관해 온 정신적 기상이요 연면하게 이어 온 기백이다. 선비문화, 선비정신은 조선의 자긍이며 정체성이다.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나라를 지탱해 온 정신적 기반이며 역사를 이어 온 원동력이다. 그러면 이 선비정신의 본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 선비정신은 원칙을 중시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선비는 세상의 변화와 물질적 조건에 구애됨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道를 추구한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말을 바꾸고 처세를 바꾼다. 또 이익이나 손해나, 행복이나 불행이냐에 따라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 그러나 선비는 어떠한 역경에도 원칙을 지키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다. 고려 말 團隱 鄭夢周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행복만을 계산했다면 결코 암살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成三問, 朴彭年 등 사육신이 당시 수양대군의 정치적 위세와 눈앞의 이익만을 보았다면 무모하게 항거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불변의 도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를 지키기 위해 한 목숨을 바친 것이다. '殺身成仁' 舍生取義를 실천하는 이가 선비이며, 仁과 義를 원칙으로 알고 목숨 바쳐 지키는 이가 곧 선비다. 退溪 李滉이 그토록 높이고자 한 理가 바로 道가 아니고 무엇이며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도 따르고 손해도 보아야 한다. 또 귀양도 가고 때로는 목숨마저 바쳐야 한다. 선비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한 비판정신을 갖는다. 제왕의 권력 앞에서나, 富貴의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를 비판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선비정신은 자기수양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다. 유교는 본래 '修己가 만사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수기란 현대적으로 자기관리를 말한다. 유교는 개인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나아가든지 먼저 자신이 바르고 건강하고 지혜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먼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知的으로 충실하고, 도덕적으로 성실해야 남의 앞에 설 수 있고, 사회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는 제왕의 학문에서도 항상 聖學을 勸勉하였고,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내면의 노력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학문에 힘써 진리를 함양하고, 부단한 자기 수양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선비정신은 公益을 추구하고 私欲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유교는 본래 '天理를 보존하고 人欲을 막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사리사욕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사로운 욕망과 욕심이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짓밟는다. 특히 지도자는 公心을 확보해 사욕으로부터 용감히 벗어나야 하고,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지도자가 사욕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면 공정성이 깨지고 대중의 신뢰를 잃어 권위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조 사회는 黃喜, 孟思誠 같은 清白吏를 뽑아 현창하였고, 茶山 丁若鏞은 清濂을 공직자의 중요한 윤리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넷째, 선비정신은 나라와 민생을 걱정하는 憂患의식이다. 선비는 개인의 이해나 영달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선비는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나거나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민생을 걱정하는 우환의식을 갖는다. 유교는 본래 內聖과 外王을 추구하는데 특징이 있다. 진정한 선비는 한편 자기 수양에 전념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유교에서의 군자나 선비가 만약 자기 수양만 추구하고 나라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는 부족한 것이다. 진정한 선비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고민해야 한다. 조선조 선비들은 유배지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라에 대한 근심걱정을 결코 놓지 않았다. 그리고 栗谷 李珥, 磻溪 柳馨遠, 茶山 丁若鏞 등 수많은 유학자들은 한편 형이상학을 논하면서도 시국을 걱정하고 국가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심초사했다.

끝으로 선비정신은 강한 실천성에 있다. 선비는 물론 독서를 많이 하고 학문탐구를 열심히 하여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선비라고 할 수는 없다. 선비는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하고, 생각한 바를 몸소 실행해야 한다. 높은 지식은 가졌으나 지조가 없고 시세에 따라 변절하고 이해에 따라 처세를 달리 한다면 진정한 선비라고 할 수 없다.

선비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곧게 하며, 올바른 가치의 실현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 실천하는 자이다. 말만 많고 이론은 번지르르하되 실천성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儒者, 선비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인과 지성인을 구별하는데, 참된 지성인이야 말로 유교에서 말하는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진실을 말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고, 정의를 말했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과 행동, 이론과 실천, 知行이 일치하는 데 선비의 본의가 있다. 우리가 15세기

靜庵 趙光祖를 道學의 모범적 인물로 평가하는 것도 그의 실천적 지성에 있다. 그는 내면적 자기수양과 함께 至治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성으로 노력한 儒者였기에 존경을 받는다. 또한 重峰 趙憲의 경우도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맞아 봇을 내던지고 칼을 들고 의병의 선두에 서서 싸우다 금산전투에서 장렬하게 죽었으니, 이것이야 말로 의리의 실천이요 도의 실천을 몸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선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예산의 유교학풍과 선비정신

예산의 유교학풍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道學風 내지 義理學風이다. 조선 초 사화시기의 유학풍을 도학이라 부르는데, 이는 자기수양, 자기관리를 전제로 나라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과 우환의식을 갖는데 특징이 있다. 먼저 자신이 군자로서의 인격과 학문을 갖추어야 하고, 항상 나라와 백성을 근심 걱정할 뿐 아니라 부국강병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金宗直,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로 이어져 온 이 조선의 도학풍은 멀리 鄭夢周-吉再의 충절의리를 계승해 온 것이며, 조선 초 수양대군에 맞서 정의를 지키다 희생된 死六臣, 生六臣의 충절의리를 계승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의리정신은 대내적으로는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로 나타나고,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자주독립정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유학사에서 연연하게 이어져 온 도학정신, 의리정신은 예산의 유교학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草菴 朴麟祐(1333~1410)는 고려 말 이성계의 혁명에 반대해 예산 덕방산 자락에 은거 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친우인 이성계가 병조판서로 세 번이나 불렀지만 나아 가지 않고 절개를 지켰다. 竹堂 申叔胥(1435~1496)는 예산세거 평산신씨의 入鄉祖로서 癸酉靖難 때 洪州牧 眇川으로 유배되었고, 그 후 수차에 걸쳐 관직을 권유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덕풍현 고현내면 대지동에 은거 절의를 지켰다. 또 牛泉 李若水(1486~1531)는 金宏弼의 문인으로 己卯土禍로 趙光祖 등이 죽고 유배당하자 성균관 유생 150여명과 함께 상소를 올려 항의하고, 마침내 투옥, 평해, 예산 대흥으로 유배 중 46세의 나이로 죽었다.

自菴 金綵(1488~1534) 또한 기묘사화 때 조광조와 함께 개혁에 앞장서다 남해, 임피 등으로 유배되었다가 47세에 세상을 떴다. 靜存齋 李湛(1510~1575)은 김광필의 문인으로 을사사화 때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의리정신의 발휘는 한말 서세 동점기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勉庵 崔益鉉(1833~1906)은 李恒老의 문인으로 衛正斥邪에 앞장서고 일제의 침탈에 맞서 의병 투쟁을 하다 투옥되고 마침내 일본 대마도에 끌려가 그곳에서 순국했으며, 修堂 李南珪(1855~1907)는 한말 위정척사에 앞장서고 항일투쟁을 하다 서거하였다. 이러한 예산의 의리정신은 일제 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梅軒 尹奉吉 의사로 이어져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목숨을 바쳐 불의에 저항하고 외세에 맞서 싸웠던 예산의 도학이나 의리사상은 원칙을 지키고 도리를 중시하는 선비정신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이해관계에 치우쳐 의리를 저버리고 세속적 名利를 위해 지조를 현신짝처럼 팔아버리는 세태에서 예산의 도학과 의리사상이 보여주는 선비정신은 매우 값진 것이다.

둘째는 성리학풍이다. 조선 유교학풍의 주류가 성리학이었다고 볼 때 예산의 유교학풍 또한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16세기 퇴계, 율곡의 시대가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였다면, 17세기는 시대변화와 함께 학문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8세기에 와서는 인간 심성의 내면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人性과 物性의 비교적 이해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遂庵 權尙夏의 문하에서 벌어진 人物性 同異 논쟁 내지 湖洛논쟁은 한말까지 이어졌다. 이 논쟁은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나 다르나 하는 것으로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와 위상 정립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본성이 개나 소 같은 다른 동물과 같다고 보는 경우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동물과 같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논쟁의 초점이 있었다. 같다고 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개미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고귀한 존재로 인간과 대등한 존재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반해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존엄한 존재이며, 특히 지성과 덕성의 측면에서 다른 동식물과 현격하게 차별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보는 것은 理의 보편성에 근거하는 것이고, 다르다고 보는 것은 氣의 차별성에 근거한 입론이다.

그런데 예산의 성리학을 대표하는 인물은 冠峰 玄尙璧(1673~1731)과 屏溪 尹鳳九(1681~1767)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권상하의 문하에서 공부한 제자들인데, 현상벽은 巍巖 李東과 같이 人性과 物性은 같다고 보는 洛論을 주장하였고, 윤봉구는 南塘 韓元震과 같이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湖論을 주장하였다.

성리학은 진실한 자아에 대한 성찰을 본질로 하는 학문이다. 인간 본성, 인간의 마음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통해 진실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의 선비정신은 무엇보다 진실한 주체의 확립, 정직한 자아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예산의 성리학자 현상벽과 윤봉구를 통해 인간의 성리 탐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배워야 한다.

셋째는 務實학풍이다. 예산의 유교학맥으로 보면 牛溪 成渾(1535~1598)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해 온 牛溪學派가 융성한 편이다. 浦渚 趙翼(1556~1613)은 李廷龜, 尹根壽의 문인인데, 이정구는 우계 성훈의 문하에서 배웠다. 조익은 李時白, 崔鳴吉, 張維와 더불어 세창‘四友’로 불리는데, 우리나라 초기 陽明學者로 분류된다. 조익은 성리학에서 벗어나 敬을 중심으로 心學的 색채를 보여주고 있고, 性理의 사변적인 논변보다 내면적인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또 博學風을 견지하고 자주적 학문경향을 보여주었다. 潛窩 李命俊(1572~1630)은 李濟臣의 손자로 부친이 李廷龜, 李恒福, 成渾의 문하에서 배웠는데, 특히 예산유학을 대표하는 治谷 趙克善(1595~1658)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趙克善은 李命俊, 朴知誠, 趙翼을 존경 흡모하고 그들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조극선은 효자로서 이름나孝橋라는 다리가 불리어졌고 이로 인해 孝橋里가 생겼다. 그는 『小學』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 기초윤리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그는 우계, 율곡의 務實학풍을 계승하여 實心의 확립과 實功, 實踐에 주력하였다.

예산의 유학자들이 보여주는 勿實학풍은 또 하나의 선비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 진정한 선비는 진실한 자아를 가져야 하고 강한 실천성을 가져 知行이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實用에 힘써야 한다. 선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와 백성에 대한 우환의식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實學風이다. 예산은 조선 실학의 대가인 星湖 李灝(1681~1763)의 형제, 후손들이 살면서 星湖의 실학정신을 이어갔던 곳이다. 이익의 숙부인 吳國鎮(1641~1696)이 세거한 이후

德山지역에 정착한 驪州李氏는 星湖實學을 家學으로 삼아 발전시켰는데, 그 중심인물은 李澈, 李灝, 李用休, 李秉休, 李家煥, 李森煥 등이다. 또한 茶山 丁若鏞(1762~1836)이 금정찰방으로 재임하던 때 이삼환이 주도한 西巖講學會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1795년(정조 19) 10월 24일부터 10여 일간 온양 西巖의 凤谷寺에 모여 星湖의 遺書를 교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李森煥의 주도로 상호 질문하고 토론하며 학문과 도리를 강마했다 한다. 이 때 모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덕산의 李森煥, 李明煥, 李載威, 朴孝競, 예산의 沈潞, 온양의 姜履五, 서산의 李儒錫, 공주의 吳國鎮, 丁若鏞, 姜履寅, 姜履中 등이었다. 이는 일종의 성호문도들의 학술연찬모임이며 성호의 실학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모임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덕산의 성호 가학의 학풍은 自得과 실천을 강조한 성호의 학문정신과 방법론을 계승한 것이다. 이익은 ‘초학자를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그 구두를 바르게 떼도록 해야 한다’하고, 규식을 만들어 「句讀指南」이라 이름 짓고 학생들로 하여금 참고하여 글을 읽게 하였다. 이삼환이 글을 가르칠 때 반드시 먼저 글의 이치를 열어보여서 스스로 이를 터득하도록 지도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修堂 李南珪는 당시에도 서당에서는 이를바 ‘長川의 句讀’라는 것이 전해 온다 하였다. 이익의 「구두지남」이 李秉休를 거쳐 李森煥에까지 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성호 가학의 학풍이요 학문방법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의 전통적 교육방법이요 학문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예산의 실학풍은 秋史 金正喜(1786~1856)로 대표된다. 그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요 金石學者이면서 탁월한 書畫家였다. 예산 신암에서 태어난 그는 北學派의 거두 楚亭 朴齊家(1750~1805)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24살 때 부친을 따라 청나라에 가서 당대 최고의 석학인 翁方綱과 阮元을 만나 그들과 교유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았다. 그리하여 옹방강으로부터 ‘經術文章 海東第一’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김정희는 함흥의 황초령비와 북한산비가 진홍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하였고, 옹방강의 漢宋折衷論에 따라 宋學과 漢學의 학문정신을 조화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實事求是를 학문하는 태도로 삼고, 학문의 목표는 宋學에서 그에 이르는 방법으로 漢學을 추구하였다. 즉 訓詁를 위한 훈고나 考證을 위한 고증을 지양하여, 훈고나 고증 그리고 金石學이 어디까지나 聖賢의 道에 이르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정희는 당대 청나라의

학계에서까지 높이 평가받는 국제적인 학문 수준을 보여준 실학자였다는 점에서 예산실학의 자긍심을 일깨워준다. 특히 그의 「歲寒圖」는 글씨와 그림과 내용이 잘 어우러진 명작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일화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도 매우 크다.

이상의 예산의 實學風은 위에서 말한 務實학풍과 그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진실, 실천, 실용을 특징으로 하는 실학풍은 곧 선비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까이는 주체의 성실성을 추구하면서도 나아가서는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고 그 대안을 찾아 실질적으로 부국강병에 이바지하고 백성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 선비의 본령이라 할 것이다. 선비는 곧 군자이고 군자는 이웃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환의식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천, 실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참 선비의 역할을 다했다 할 것이다.

4. 선비정신의 현대적 의의

이 시대에 선비정신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이제 유교의 선비정신이 오늘의 한국사회에 요청되는 까닭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선비정신은 나라의 격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했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력,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 교육력, 예술, 스포츠 등 다른 영역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비정신이다. 정치인들은 원칙도 없이 철새처럼 利害에 따라 오고 간다. 정치적 신념도 없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爲政의 大義도 없다. 세상에 영합하고 권력에 아첨하고 힘에 좌우된다. 정의, 대의를 지키려는 정치인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우리 사회는 도처에서 윤리적 결핍을 겪고 있다. 개인의 도덕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가정의 전통적인 윤리질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가 위기에 처해있다.

사회윤리 또한 선후배질서, 남녀질서, 노사관계 등 전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윤리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수준은 곧 그 사회의 품격을 말해준다. 오늘의 한국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윤리'에 있다. 유교의 선비정신은 윤리를 기본으로 한다. 선비는 윤리에 충실하고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 선비는 윤리적으로 남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선비정신은 오늘의 한국사회를 한 단계 수준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경제지상의 가치관, 物神주의의 팽배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경시하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 선비는 비록 배가 고파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가난 속에서도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돈이면 만사가 해결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선비정신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바르고 곧고 청렴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부정, 부패, 부조리, 비리, 반칙 등은 모두가 선비정신에 반하는 것들이다. 이제 우리 사회를 정상으로 옮겨놓고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루하기 위해 선비정신의 부활이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선비정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도자가 국민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지도자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교육, 과학기술, 예술, 스포츠 등 대부분의 분야가 선진국의 수준에 올라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유독 정치만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한탄스런 일이다. 지도자가 되려고만 하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 지도자의 욕심만 있지 지도자가 지녀야 할 품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덕성에 문제가 많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大公의식이 부족하다.

공직윤리, 공직의 사명감이 부족하다. 조선의 선비들은 죽어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였다.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 봇을 내던지고 칼을 들고 나가 싸웠고, 임금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 목숨 걸고 싸웠다. 비록 당쟁이라 하여 부정적으로 비판하지만, 조선조 선비들은 임금 앞에서 나라와 백성이라는 대의를 놓고 밤새워 토론하고 시시비비를 가렸다. 오늘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조선의 선비들의 기상을 볼 수 있는가? 지금 이 나라에 부정과 부패로 법정에 서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소위 배운 자들이고 지도층이 아닌가? 영어, 수학만

잘 하는 우등생들이 결코 선비는 될 수 없다.

이제 선비정신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선비의 기준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국민의 현명한 슬기가 필요하고 정치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도덕적으로 건전한 지도자, 원칙을 중시하는 지도자,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 공익을 우선하는 지도자 이런 선비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선비정신을 우리 교육에 반영하여 건강한 한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훌륭한 지도자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에 투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기 임기동안의 가시적인 성과에 눈이 어두워 교육에 투자 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교육은 지적인 역량, 기술적 역량을 키우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분단된 여건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것은 분명 교육의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불안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문제는 인성교육, 전인 교육, 철학교육의 부재에 있다. 입시제도만 바꾸지 교육의 본질을 바꾸는 데는 소홀하였다. 이제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직한 것이고, 남을 배려하고 돋는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또 원칙을 중시하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 내 자식의 출세와 행복만을 원하는 엄마들의 잘못된 교육관도 시정되어야 한다. 실력 있는 아이보다 올바른 아이를 만들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 선비정신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를 준다. 서구적 교육이론에 매몰되어 공리공론에 빠지지 말고, 그 진리를 우리 것에서 배우고 찾아야 한다. 선비정신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목표이고, 선비는 우리 교육이 가야 할 인간상이다. 어려서부터, 중등교육에서부터 올바름을 가르쳐야 하고 공익을 실천하도록 하고,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세계인류를 걱정하도록 키워야 한다.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쫓고 법을 준수하는 생활습관을 가르쳐야 한다. 기본이 바로 선 인간, 원칙에 충실한 인간, 공동체를 걱정하고 이웃을 배려

하는 인간을 가르쳐야 한다. 선비정신을 이 나라 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만들어 가자.

끝으로 선비정신을 한국인의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자. 선비정신은 결국 교양 있고 품격 있는 국민정신이라 할 수 있다. 나라의 격을 높이는 것도, 지도자의 격을 끌어 올리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수준에서 비롯된다. 선비정신은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곧 조선조 유교문화의 소산이다. 우리 국민의 품격을 높이고 교양을 높이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오십년 백년이 걸려야 국민성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선비정신의 대중화, 선비정신의 국민화를 위해서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도층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의 생각이, 장관들의 생각이,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를 현실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의 제도를 바꿔야 하고 교과서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적 시스템이 변화해야 하고 학부모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회, 성당, 법당, 서원, 향교 등 종교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언론 매체의 대중적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선비정신을 국민정신으로 홍보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경제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비정신은 유교문화의 훌륭한 자산이고 한국유교의 자랑스런 유산이다. 이 선비정신을 21세기 한국사회의 선진화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고 책임이다. 역사의 골동품이라고 버려버리면 쓰레기가 될 것이고, 그 가치를 알고 시대에 맞게 활용한다면 소중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예산의 여성문인 南貞一軒(1840~1922)의 삶과 품격

문희순(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정일현의 생애

南貞一軒(1840~1922)은 조선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으로 살았다. 정일현의 노년기는 정일현이 옮은 시 <五岳>에서 표현 된 바 ‘서양선박 요괴로운 악한 기운’¹⁾이 조선사회를 송두리째 흔들던 혼돈의 시대상황 이었다. 이 때는 과부의 개가 허락과 동시에 열녀의 절행을 요구하는 이중적 이념이 공존했던 시기였다.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허락한다.”고 갑오경장에 명시하였다. 여성들에게는 개혁의 시대에 와 있었다. 그러나 정일현은 오롯이 조선시대의 여성처럼 살다간 조선의 마지막 여성문인이다.

정일현은 3세 때 훈민정음을 깨우친 이후 한문교육을 받고 자랐다. 조부 남영주는 재능이 특출한 어린 손녀 정일현에게 매일 수십 자의 한자를 가르쳐 문리를 깨쳐 주었다. 경서와 역사서 공부를 막힘없이 하는 사이 「열녀전」과 「여자소학」을 익혀 조선여성의 정절 이데올로기를 몸에 붙였다. 실제로 나이 스물에 남편의 상을 당하자 열녀의 절행을 감행하고자 나무 쇠에 불을 붙여 투신하기도 하였다.

정일현은 16세에 우계 성혼의 10대손 成大鎬(1839~1859)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성대호가 혼인한지 4년 만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정일현은 남편이 죽자 분신 자결을 실행에 옮겼다. 그 때 스무 살의 며느리 정일현의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은 시어머니 전의이씨(1811~1865)였다. 이후 정일현은 감내하기 힘든 자신의 운명을 위로하고 수양하는 방편으로 성리철학에 몰두하였다.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貞夫’을 취하여 자신의 집에 ‘貞一’이라는 편액을 걸어 자호하였다.²⁾

정일현이 거주하던 집의 또 하나의 당호는 ‘道雲閣’이다. 도운각이라는 이름은 道高山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집의 호로 삼은 것이다. 정일현이 살았던 예산 간양리 구두물[九井]의 자연 공간은 도고산과 덕봉산으로 둘러싸여 있다.³⁾

정일현 생애의 대부분은 예산 금평면 구두물[九井] 현재 지명 예산읍 간양리에서 살다가 죽하였다. 「정일현시집」 수록 한시도 대부분 간양리에서 창작된 것이다.⁴⁾

정일현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까지 경서공부와 문학작품 창작을 병행하였다. “내 가슴 깊은 곳에 한 편의 시가 있다.⁵⁾고 고백한 문학가. 그녀의 작품이 축적되어가면서 자연스레 친인척 사이에서 ‘大家’로 존중하였고, 내외 집안 남성들이 정일현의 시를 암송하기에 이르렀다.⁶⁾ 하여 정일현은 한문을 능란하게 구사하고 한시를 창작한 여성한문학의 마지막 세대가 되었다. 거기에 한글 가사작품 까지 창작함으로써 고전여성문학사에서는 보기 드문 이중 언어의 문학 작품을 남긴 여성 문인이다.⁷⁾

정일현의 문학작품은 문집 「정일현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정일현시집」⁸⁾은 정일현의 한시작품 65수와 제문 1편, 타인이 지은 부록작품 6편으로 구성되어있다. 타인의 작품으로는 아들 성태영의 <선고비합장묘지>, 이건창의 <정일현시집서>와 한시 <詠五律呈道雲閣老姊> 1수, 이건방의 <묘표>, 이건승의 편지 <상도운각서>와 <발문>이다.

다음은 <선고비합장묘지>(성태영 저), 「창녕성씨수출당공파보」, 「의령남씨족보」, 「조선왕조 실록」, <성대호영결문>(남세본 작)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정일현의 생애연보이다.⁹⁾

1) 「정일현시집」, <五岳>. “莫愁洋舶妖氛惡”

2) 성태영, <선고비합장묘지>, “年二十。遭我府君之喪。有下從之志。家人。知其意。常密察。一日適無人夜深。投家後積柴中而引火焚之。爲我祖妣所覺。冒火提出。相抱而哭曰。“汝死。吾何以爲生。姑婦相依。以終餘年。乃汝之孝。汝忘汝夫臨終之言乎?”且諭以古孝婦之事。遂感其教。黽勉得全。自是以後。治家之餘。以書史自娛。扁其軒曰‘貞一’。”

3) 정일현의 묘소는 아산 농온리에 있다. 농온리는 도고산과 경계한 곳이다.

4) 이건승, 「정일현시집」 발. “孺人。晚年居湖西。” 현재 구두물 생가지는 밭으로 변해있다.

5) 「정일현시집」, <端午寓興> “我有箇中詩一篇”

6) 이건창, <정일현시집 서>. “余故呈之以詩曰。“重聆大家訓。不作女囂言”。觀乎此。可見姊之有達識也。抑余能誦姊之詩。能序姊之詩。而卷中無一詩贈余者。觀乎此。滋歎其法度之爲不可及也已”

7) 우리나라 역대 시조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한역시조 <翻方曲> 11수를 창작한 남구만과 한시평론집 「晦隱瑣錄」의 저자 남학명 (1654-1722), <속동도악부>를 지은 남극관(1689~1714)은 각각 정일현의 7대 ~ 5대 선조가 된다. 국문시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가계전통이 정일현의 한글가사 작품창작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8) 1923년에 활자본으로 출판된 「정일현시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은, 허미자에 의해 「조선조여류시문전집」 3권(태화사, 1988.)에 영인 수록되었다. 필자에 의해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친필 한글가사작품 <남초가>, <권효가>, <규원가>, <노인탄가>와, 「소학집뇨」, 「널녀전」, 「오행법」, 「오륜형실」 등의 친필본이 발굴되었다.

9) 생애 연보와 가계도는 『역주 정일현시집』(문희순)의 해제를 참고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표 [정일현의 생애연보]

번호	서기	간지	왕력	나이	생애 이력
1	1840	경자	현종6	1세	12월 17일 태어난다.
2	1842	임인	현종8	3세	한글을 깨우친다. 할아버지 남영주로부터 한자를 배운다.
3	1855	을묘	철종6	16세	4월. 성대호와 혼인하다
4	1856	병진	철종7	17세	8월 17일. 할아버지 남영주가 졸하다. 12월 11일. 시할아버지 성원묵이 예조판서에 임명되다. 12월 30일. 시할아버지 성원묵이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다.
5	1857	정사	철종8	18세	겨울. 딸을 낳다.
6	1858	무오	철종9	19세	11월. 딸이 죽다.
7	1859	기미	철종10	20세	2월 7일. 남편 성대호가 21세로 졸하다. 금사동에 장례. 분신을 시도하다. 시어머니 전의이씨 (1811~1865)가 구하다.
8	1862	임술	철종13	23세	시할아버지 성원묵과 시할머니 여주이씨의 회혼 년이다.
9	1864	갑자	고종1	25세	시할아버지 성원묵이 판의금부사에 임명된다.
10	1865	을축	고종2	26세	3월 28일. 시할아버지 성원묵이 졸하다. 5월 6일. 시할아버지 성원묵의 장사를 치르다. (묘소: 아산 농은리) 시어머니 전의이씨가 졸하다.
11	1869	기사	고종6	30세	9월 18일. 시할머니 여주이씨 (1786.7.13.~1869.9.18)가 졸하다.
12	1870	경오	고종7	31세	이 해에 성태영을 양자로 들이다.
13	1871	신미	고종8	32세	4월 7일. 시아버지 회갑 일을 맞아 시를 짓다. (정일현시집-11, <尊舅花甲>)
14	1877	정축	고종14	38세	1월 28일. 친정어머니 청주한씨가 졸하다.
15	1882	임오	고종19	43세	7월 25일. 시아버지 성재선이 졸하다.
16	1884	갑신	고종	45세	3월 21일. 친정 숙모 파평윤씨의 제문을 짓다. <祭戚叔母淑人坡平尹氏>
17	1888	무자	고종25	49세	8월 16일. 친정아버지 南世元이 졸하다.
18	1889	기축	고종26	50세	남편 성대호의 묘를 마을 뒷산 구정으로 옮기다.
19	1894	갑오	고종31	55세	동학이 일어나자 피난하고, 시문의 초고를 불태우다.

번호	서기	간지	왕력	나이	생애 이력
20	1896	병신	고종33	57세	5월 26일. 육촌 동생 이건창이 정일현을 방문하고 시를 짓다.
21	1900	경자	대한제국4	61세	10월 23일. 육촌 동생 이건승이 정일현의 화갑을 즈음하여 축하편지를 보내다. (정일현시집 부록-<上道雲閣書>) 12월 17일. 회갑을 맞아 축하연을 벌이다.
22	1903	계묘	대한제국7	64세	2월. 남편 성대호의 묘를 아산 도고 농은리에 이장하다.
23	1922	임술	임시정부4	83세	5월 1일. 아들 성태영의 회갑을 맞아 손수 마름질한 옷감에 손부들에게 수를 놓게 하여 옷을 만들다.
24	1923	계해	임시정부5		11월 14일. 風痰의 병세로 여러 달 병석에 있다가 졸하다. 남편의 묘소에 합장하다.
25	1924	갑자	임시정부6		단오일. 이건승이 만주에서 정일현시집 발문을 쓰다. 6월. 묘비를 세우다. (묘소: 아산 도고 농은리 잔골. 묘표 : 이건방 짓고, 윤용구 쓴다.)

2. 시문학의 세계와 품격

정일현의 한시작품에 대하여 이건창은 <정일현시집서>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 시는 대부분 ①친정에 돌아가 부모를 뵙고 싶으나 이를 수 없는 정을 서술하였다. ②시아버지의 장수를 축원하고, ③아들의 어짊을 바라며, ④누에치기와 농사가 잘 이루어짐을 기뻐한 것 이었다. 그리고 ⑤때로는 다시 변방에 나간 병사들의 강개한 말과, ⑥신선세계에 노니는 아득한 음운과, ⑦태극과 이기에 관한 순수·전아하고 심오한 말을 하였으며, ⑧쓸쓸한 등불 아래 차가운 비가 내리는 것을 읊는 처량하고 가련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¹⁰⁾

이건창은 정일현의 시에는 ‘결코 쓸쓸한 등불 아래 차가운 비가 내리는 것을 읊는 처량하고 가련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絕不肯見塞燈冷雨, 懘楚可憐之態]’고 평가하였다. 이는 조선 여성의 한시에서 보이는 空閨의 고독감, 쓸쓸한 등잔불 밑에서 정인을 기다리는 한시와는 다른 면을 부각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정일현 한시의 주제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예산 간양리 도운각의 경물

「정일현시집」에 수록된 한시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예산 간양리 도운각의 공간과 경물이다. 정일현의 창작 경향성으로 볼 때, 동학 때 불에 타 없어진 작품 중에는 서울의 풍광을 읊은 작품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南山>과 <駱山> 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전 65수의 작품가운데 간양리 도운각의 경물을 노래한 작품은 <麥秋>, <是歲十月之望>, <道雲閣謾詠>, <道雲閣卽事>, <道雲閣閒吟>, <天下春>, <山亭四時用一韻四首·春景>, <夏景>, <秋景>, <冬景>, <緣陰>, <黃鶯>, <鵲巢>, <鷺巢>, <蟋蟀吟>, <春>, <夏>, <秋>, <冬> 등이다. 先景後情의 기법을 구사하여 도운각 주변의 자연 공간을 노래하며 내면의 의식세계를 표현한 방식이 주를 이룬다.

아래의 시 ①②③은 정일현이 거주하고 있는 道雲閣을 노래한 것이다.

시 ①

<도운각의 감흥>	<道雲閣謾詠>
<p>속세 밖 한가로이 살 곳은 어디인가? 도고산 봉우리 아래 흰 구름 깊은 곳. 서안 너머 문 앞엔 너른 들판 열려있고 집 둘레의 푸른 숲 울타리가 되었다지. 세상 근심 버린 삶 삼공과도 바꾸지 않고 신선처럼 살 곳은 이 골짜만한 곳 없으리. 새로 지은 시 읊조리나니 그 뉘 화답할까? 꽃동산 봄새들의 지저귐 모두 아름답구나.</p>	<p>物外閑居何處尋 道高峰下白雲深 門前對案開平野 宅畔成籬繞碧林 不換三公遺世累 莫如一壑有仙心 新詩吟罷誰能和 花院春禽攬好音</p>

시 ②

<도운각의 즉흥>	<道雲閣卽事>
<p>도고산의 빼어난 경치 옥부용이요 노적봉 앞에는 정자봉이 있다오. 겨울 지낸 솔잎은 그 빛 더욱 푸르고 오동 가지에 엉긴 눈, 꽃의 자태 아닐런가. 맑게 갠 창가 황홀하니 장주의 꿈속 인 듯 빼어난 경치의 한가로움 주무숙의 흥금인 듯. 서쪽 하늘 걸린 달 빛 방안에 흘러들면 자리에 가득한 벚님네 기뻐 맞이하는 것을.</p>	<p>道高山秀玉芙蓉 露積峯前丁字峯 松葉經冬猶翠色 桐枝凝雪更花容 晴窓恍惚莊周夢 妙境清閑茂叔胸 月掛西天光入室 高朋滿座喜相逢</p>

시 ③

<도운각의 한가로움>	<道雲閣閒吟>
<p>만 권 책 읽어냄은 드넓어 끝이 없고 비단과 주옥같은 시 날로 집에 쌓여가네. 집 둘레 둘러쳐진 푸른 산 천고의 색깔이요 창가에 드는 밝은 달 언제나 아름답도다. 온화함은 옥 같으니 아름다움 간직했고 온은히 이루어진 문장 화려함이 드러나네. 힘을 다해 성과 경의 학문 힘쓰나니 어찌 시를 읊어 남에게 자랑 하리오?</p>	<p>讀書萬卷浩無涯 錦繡瓊瑤日滿家 繞屋青山千古色 入窓明月四時嘉 溫其如玉藏中美 闇以成章發外華 着力宜先誠敬學 豈有吟詠向人誇</p>

①②③의 시는 모두 정일현 자신이 거하고 있는 도운각의 감흥을 노래한 것이다. 도운각이라는 이름은 도고산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집의 호로 삼은 것이라고 부제한 기록이 있다.¹¹⁾

10) 이건창, <정일현시집 서>. “其詩多自述其思歸寧而不得之情。與祝舅之壽。望嗣之賢。喜蠶稼之成。而時復爲出塞慷慨之辭。遊仙窈杳之音。太極理氣醇深典奧之語。而絕不肯見塞燈冷雨悽楚可憐之態。”

11) 「정일현시집」, <도운각만영> 시제 아래에 “居道高山下。故因以爲閣號。”라는 주석을 달았다.

도고산은 정일현의 생가 마을 간양리를 감싸 도는 해발 482m의 큰 산이다. 정일현의 집은 도고산과 덕봉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①의 <도운각만영> 시에는 도고산 봉우리 아래 흰 구름 깊은 곳. 문전에는 시야가 트인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고 푸른 숲이 집의 울타리가 되어 있다. 봄꽃과 새들의 지저귐이 아름답게 들리는 곳. 세상 근심 하나 없어 삼정승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신선은 도운각에 살고 있는 정일현 자신이라고 읊었다.

②의 <도운각즉사> 제 2구에 나오는 노적봉과 정자봉은 정일현 집의 오른쪽과 전면에 펼쳐진 야트막한 야산 봉우리들이다. 간양리 사람들은 이 정자봉을 ‘고무래봉’이라고 부른다. ②의 시는 집 주변 원경의 노적봉과 정자봉으로 시상을 끌어 들여, 작가가 위치해 있는 근경의 소나무와 오동나무로 시선을 이끈다. 솔잎[松葉]과 오동가지[桐枝], 겨울[冬]과 눈[雪], 푸름[翠色]과 힘[雪花容], 시간의 흐름[經]과 멈춤[凝]이라는 공간과 시간성을 표현하였다. 정일현은 도운각 청창에서 황홀경에 빠져 잠시 꿈을 꾸며 장자의 <호접몽>의 주인공이 되어 자아와 외계와의 구별을 잊어버리기도 하였고, 자신이 주돈이의 ‘쇄락한 흥금’¹²⁾을 가진 사람으로 치환하기도 하였다. 老莊과 儒를 넘나드는 독서량의 과시가 엿보이는 시이다. 호서의 한 작은 산촌마을 도운각 규중에 처해 있는 작가의 상상은, 나비가 되어 온 우주를 넘나드는듯하다.

정일현은 온 세상이 봄소식으로 가득한 날 훈훈한 봄바람을 폐부 깊숙이 들이 마시며 도운각에 눕기도 하였고,¹³⁾ 술통의 술을 맑고 흐림을 따지지 않고 마시며 시내를 따라 깊숙이 걸어 들어가기도 하였다.¹⁴⁾ 산골짜기에 녹음이 짙게 깔린 늦은 봄. 노란 꾀꼬리가 늘어진 버드나무 사이를 날아드니 그 모습은 마치 황금 북으로 비단을 짜내는 모습¹⁵⁾이라고 노래하였다. 사물의 섬세한 관찰과 시상을 엮어내는 기교가 돋보이는 시 들이다. 정일현은 간양리 들판 가득이 누런 곡식 황금물결이 출렁이며 새벽이 밝아오도록 책을 읽었다.¹⁶⁾ ③의 <도운각한음> 시에서 읊은 것처럼 만권의 책을 읽어냈고, 집에는 주옥같은 시가 날로 쌓여만 갔다. 그 시는 ‘옥 같이 아름다웠고, 은근히 화려하였다.[溫其如玉藏中美。闇以成章發外華]’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정일현의 친가 南氏와 시가 成氏 사람들 모두 정일현의 시를 볼 수 있는 이는 드물었다.¹⁷⁾

12) 무숙은 주돈이(1017~1073)의 자이다. 일찍이 중국 북송시대의 황정견(1045~1105)이 주돈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무숙은 속이 시원스러워 비가 갠 뒤의 화장한 바람이나 밝은 달과 같다.(胸中灑落。如光風灑月。)”고 말하였다.

13) 「정일현시집」, <天下春>. “天下春歸吾肺腑。道雲閣上臥閑雲。”

14) 「정일현시집」<山亭四時用一韻四首·春景>. “盈檻蟻浮清濁飲。償春步步雲生屐。不覺緣溪路轉深。”

15) 「정일현시집」<黃鶯>. “嚶嚶出谷喚春深。萬樹葱蘋遍綠陰。飛入垂楊聲愈巧。織絲處處擲梭金。”

16) 「정일현시집」<山亭四時用一韻四首·秋景>. “黃雲遍野堆金色。風自西南聲在樹。孤燈讀罷五更深。”

17) 이건창, <정일현시집 서>. “姊平生所爲詩。雖成·南二氏之人。罕得見者。”

2.2. 양자 입후와 모정

정일현의 삶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빨리 양자를 들여 후사를 잇는 일이었다. “인생에 후사가 끊어짐이 가장 슬픈 일”¹⁸⁾로 인식하였다. 「정일현시집」수록 한시 중 <尊舅以求螟事行次坡州> 시 2수, <鷄兒>, <桃李曲>, <望子曲>, <螟蛉曲>, <禱天曲> 등이 양자를 시적 제재로 읊은 시이다. <春>, <夏>, <秋>, <冬> 사시를 읊은 시에서도 기승전 자연의 경물을 읊다가도 결구에 이르러서는 양자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맺고 있다.

선경후사의 후사에 양자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사랑, 믿음이 들어있다. 다음 시는 시아버지 成載璿¹⁹⁾ 성재선은 황간 현감을 지냈다. 묘는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에 있다. 이 양자를 구하러 파주로 떠나는 모습을 읊은 시 두 수이다.

<양자를 구하러 파주로 떠나는 시아버님의 행차 1>

이 몸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
시부모만 믿었으나 끝내 시어머님 여의었네.
시동생의 아들 바랐으나 기르지 못했으니²⁰⁾
어느 때에나 양자를 데려올 수 있으리오?

<尊舅以求螟事行次坡州>

此身無子又無夫
只恃舅姑竟失姑
望弟生兒兒未育
何時蝶贏負蒲蘆

<양자를 구하러 파주로 떠나는 시아버님의 행차 2>

남들은 자식 있으되 나는 양자를 구하니
병든 시아버님 길 떠나매 그 얼마나 눈물 흘렸던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일 오직 예 있으매
총명한 아들 어느 곳에서 찾아오시려나?

<其二>

他人有子我求螟
病舅登程淚幾零
日夜祈望惟在此
鳳雛何處生寧馨

위의 <尊舅以求螟事行次坡州> 시에서 ‘求螟’은 양자를 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蟠은 蟠蛉으로 나비, 나방 류의 애벌레이다. 옛 사람들이 나나니벌[蝶贏]이 蟠蛉을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 길러서 나나니벌로 만든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다.²¹⁾ 정일현은 위의 시에서 ‘無子’ 그리고 ‘無夫’. 죽음의 불구덩이에 던져진 자신을 구해 준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의 죽음. 시동생의 아들을 기다렸으나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바란 것은 ‘총명한 어린 아들[鳳雛]’이었음을 표현하였다.

18) 「정일현시집」, <望子曲>. “人生絕嗣最爲悲。”

19) 성재선은 황간 현감을 지냈다. 묘는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에 있다.

20) 정일현의 시동생 成敬鎬의 큰아들 成昌永(1881.12.18.~1907.11.15.)이 태어날 때가 정일현 42세 때이다. 성창영 이전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다.

병든 몸으로 양자를 구하기 위해 파주로 떠나는 시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 없는 눈물로 웃깃을 적셨다. 이십대 청상의 三從道를 의탁할 자식은 언제 어느 곳에서 올는지 긴장과 슬픔, 간절한 소망의 심리를 애상의 감정으로 표현해 내었다.

<螟蛉曲> 7언 율시에서도 나나니벌이 애벌레를 업고 땅속 구멍으로 들어가 7일간의 수고로움 끝에 벌이되어 날아가는 상황을 섬세히 표현하였다. 나나니벌은 자신의 몸보다 덩치가 큰 애벌레를 구멍 속으로 끌고 들어가 나나니벌 유충의 먹잇감으로 제공한다. 어린 나나니벌 유충들은 그 애벌레를 먹고 벌이되어 구멍 밖 세상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정일현은 이러한 곤충들의 세계를 섬세히 관찰한 듯하다. “네가 땅 구멍 속에서 수고하는 뜻 아니니, 우리 아들과 어미는 화락하게 살아간다네.”²²⁾라고 노래하였다. 나나니벌의 지극한 자식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자신의 자모 관계의 화락을 다짐한 것이다.

<병아리>	<鷄兒>
날개로 둥근 알을 품어서	翼覆團團卵
그렇게 이십일을 넘긴다네.	自然廿日踰
암탉이 부지런히 어미가 되고	雌慈勤作母
껍질 터져나니 새끼가 나오는구나.	甲坼乃生雛
벌레와 개미 물어다 자식 먹이고	哺子求虫蟻
까치와 까마귀를 피하라 가르치네.	警兒避鵲鳥
닭을 보고 내 깨달음 있나니	觀鷄吾有得
나나니벌의 수고로움 사양치 않으리라.	負贏不辭劬

위의 <鷄兒> 시에서도 양자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닭이 알을 품은 지 스무날. 암탉은 어미가 되고, 껍질 속에서는 병아리가 터져 나온다. 어미는 벌레와 개미를 부지런히 물어다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까치와 까마귀의 공격을 피하라 경계한다. 정일현은 그런 닭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나나니벌의 수고로움, 곧 양자에 대한 보살핌과 교육을 기꺼이 사양치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마당에서 펼쳐진 미물의 일상을 관찰하고 가탁하여 자신의 양자를 대하는 태도와 정성을 표현하였다.

<望子曲>에서는 “남의 자식 효도 바라기 어렵다 말하지 말라. 오직 어미의 한없는 사랑에

21) 「시경」 소아 <소완> 편에 “명령의 새끼를 과라가 업어 간다. 네 자식을 잘 가르쳐 잘 닮도록 하라.[螟蛉有子。蝶蠶負之。教誨爾子。式穀似之。]” 시가 있다.

22) 「정일현시집」 <螟蛉曲>. “取看土窠勞苦意。吾人子母做和雍。”

달려 있다. 훤당에 늦은 봄이 이르면, 장차 보리라! 섬돌 아래 난초지초 벌려있음을.”²³⁾이라 읊었다. 양자를 지극히 사랑할 자신감, 그러므로 자신의 말년에는 자랑스러운 자손들이 온 뜰 안 가득 향기를 발할 기대감으로 충만 되어 있다.

이상의 시 외에 <禱天曲> · <桃李曲> 등에서도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내 아들을 삼았어도, 오래되고 오래되면 마땅히 내가 낳은 자식과 같다.”²⁴⁾고 모자관계의 애착을 표현하였다. <夏> 시에서는 “우리 아이를 위해 옥황상제께 무엇을 빌 건가? 여름에 구름이 일어나듯 많은 복을 구한다.”²⁵⁾ <秋> 시에서는 “송아지 향아주는 작은 정성 농사일과 같나니, 좋은 짹 길러내면 가을을 기약하게 되리라.”²⁶⁾ <冬> 시에서는 “산중에 또 한 해가 저무나니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 양자 만복이 이어지길 축원함이로다.”²⁷⁾라고 각각 기원하였다. 양자의 삶에 만복이 내리길 축원하고 또 축원하였다. 어미 소가 송아지를 혀로 향아주듯 좋은 짹을 정성으로 길러내면 분명 가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정일현의 숭고한 모성은 이러한 양자입후 시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2.3. 사친과 가족애

「정일현시집」에 수록된 한시 가운데는 친정 부모님 문안을 드리고자 하나 뵈올 수 없는 애틋한 마음과 시아버지의 장수 축원, 시동생 내외와의 가족애가 표현된 시가 적지 않다. 친정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시는 <送童婢歸觀>, <思歸寧>, <駱山>이고, 시부모와 남편 동생 부부, 시누이, 조카 등에 관련한 시는 <尊舅花甲>, <送別夫弟夫婦搬移京第> 2수, <呈夫姊>, <贈夫弟>, <用前韻答夫弟>, <賀姪兒初生> 2수 등이 있다.

23) 「정일현시집」, <望子曲>. “莫云他子難望孝。惟在阿嬢克盡慈。會到堂萱春暮後。佇看階下列蘭芝。”

24) 「정일현시집」, <桃李曲>. “取他人子爲吾子。久久當如已所生。”

25) 「정일현시집」, <夏>. “那得爲兒祈上帝。自求多福夏雲興。”

26) 「정일현시집」, <秋>. “微誠舐犢如農業。養得嘉苗庶有秋。”

27) 「정일현시집」, <冬>. “歲暮山中何所願。負螟惟祝福源源。”

다음 시는 <思歸寧>시이다.

<친정 부모 생각>	<思歸寧>
여자가 시집가면 양친에게서 멀어진다지만	女子之行遠兩親
밤마다 고향의 산천에서 노는 꿈을꾼다지.	釣淇陟岵夢遊頻
우리러 당상에는 홀로이신 시아버지 계신데	仰惟堂上鰥居舅
오로지 규중 박명 이 몸에 의지하시네.	專靠閨中薄命身
고향이 비록 가까운 곳에 있다하지만	雖是故鄉三舍近
감히 다녀오겠단 한 마디 아릴 수 있으리?	敢因師氏一言陳
사사로운 정은 날아가는 까마귀만 못하나니	私情不及飛烏鳥
아침저녁 문안 인사 한 번이라도 다녀왔으면.	晨去昏來定省均

위의 시 3구에서 ‘당상에 홀로계신 시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시어머니 전의이씨가 죽은 뒤임을 알 수 있다. 전의이씨는 정일현 26세 때 죽었다. 친정부모가 다 살아계실 때이므로 적어도 정일현 38세 이전에 지어진 작품이다. 5,6,7구에서는 고향이 가까이 있지마는 감히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차마 아릴 수 없는 딱한 처지를, 창공을 자유로이 나르는 까마귀만 못하다고 표현하였다. 8구에서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친정 부모님 문안을 다녀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였다.²⁸⁾ 어버이를 그리는 절실힘은 아래의 <送童婢歸觀> 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시누와 시동생에게 보낸 시이다.

시누님께	呈夫姊 ²⁹⁾
형님과 나 비록 똑같이 치마를 입었으나	兄我雖云同着裳
종유함에 언제 서당을 함께 하였던가요?	從遊何可共書堂
깊은 밤 빈 방엔 응당 하얀 달빛 새어들고	夜深虛室應生白
눈 덮인 외로운 소나무 푸르름 변치 않지요.	雪壓孤松不改蒼
성현의 책 읽으니 심오한 성리의 이치요	書讀聖賢皆理窟
속세를 멀리한 산속 바로 신선의 마을이네요.	山離塵俗是仙鄉
애오라지 부족한 시로 아름다운 시구에 화답하니	聊將土缶酬瓊什
구름 낀 저문 강 하늘 속절없이 바라보네요.	雲暮江天更悵望

28) 정일현의 친가 홍성 결성 용호리와 예산 간양리의 거리는 대략 40km가 된다. 카카오맵 지도 자전거도로로 환산한 거리이다.

29) 시누 남편 朴齊政은 1837년(정유년, 현종3)생으로 자는 舜七이다. 28세 때 고종1년(1864, 갑자년)에 치러진 증광시에 진사로 합격하였다. 아버지는 영원진 병마첨결제사를 지낸 朴晉壽이다. 거주지는 양주이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시동생에게	贈夫弟
편지가 한 번 끊겨 천애에 막혔으니	音書一斷隔天涯
아득한 구름사이로 시동생 집 바라본다네.	悵望雲間賢弟家
짙장구로 흥얼거림은 나의 어리석은 견해요	土缶嘔哇愚見妄
비단 주머니 주옥같은 글 얼마나 아름다울 런지.	錦囊璀璨幾篇嘉
못난 시를 써주고 아름다운 시 오래도록 기다리니	木瓜久待瓊琚報
한자의 편지 어찌 금옥의 아름다움 없을 손가?	尺素胡無金玉華
졸렬한 시구는 오로지 소식을 찾고자 함이니	拙句要探信息大
회포를 쓰이요, 감히 글자랑은 아니라오.	叙懷非敢唱酬誇
앞의 운을 가지고 시동생에게 답함	用前韻答夫弟
서방님의 글 흘연 거친 냇가 마을에 당도하니	賢書忽落荒溪涯
어리석은 형수 칭찬하여 대가에 견주었구려.	推許愚兄比大家
규중심처 거쳐하여 재식 양음을 한하노니	恨處深閨才識淺
어찌 문원에서 훌륭히 닦일 것을 기약하겠소?	敢期文苑濯磨嘉
한가하고 고요할 때 많아 진세의 번거로움 잊고	時多閒靜忘塵累
날로 자적하여 노닐며 세월 흘려 보내다오.	日事優遊度歲華
남들은 혹 내가 지은 글이 아니라 의심하기에	人或致疑非我製
이제부턴 시 지어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하오.	從今誓不以詩誇

정일현의 시누 창녕성씨는 반남박씨 朴齊政에게 시집갔다. ①<呈夫姊> 시 첫 구에서兄이라 호칭하는 것으로 보아 손위 시누임을 알 수 있다. 위 ①②③의 시로 볼 때, 정일현은 남편의 형제들과 시를 주고받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의 시에서 정일현은 시누 창녕성씨에게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시[土缶]로 시누의 아름다운 시구에 화답[瓊什]한다고 표현하였다. 3,4구에서 빈 방[虛室]과 외로운 소나무[孤松]는 화자 정일현 자신의 처지를 가리킨다. 하얀 눈이 덮인 소나무. 그 소나무는 아무리 눈이 덮더라도 그 푸름을 고치지 아니 한다.[雪壓孤松不改蒼]고 표현하였다. 이는 「논어」의 ‘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를 연상케 하며, 정일현 자신의 남편에 대한 지조를 암암리에 표현해 낸 시구로 읽힌다. 그러면서 성현의 서책 속에 들어 있는 심오한 이치를 탐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신선의 마을이라 표현하였다.

②③ 시는 정일현 보다 여덟 살 아래의 시동생 성경호에게 준 시이다. 정일현은 ②의 시에서 “자신의 못난 시를 써주고 아름다운 시를 오래도록 기다렸다.[木瓜久待瓊琚報]”고 표현

하였는데, 이는 「시경」에서 그 전거를 가져와 쓴 것이다.³⁰⁾ 정일현의 시는 「시경」<모과> 편의 의경을 뒤집어서 말한 것이다. 자신은 형편없는 시[木瓜]를 시동생에게 써 줬으나, 시동생은 아름다운 시[瓊琚]로 화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구에서는 감히 글 자랑 하려고 시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니고 소식을 듣고자 시를 보냈음을 강조하였다.

③의 시에서는 형수를 ‘大家’라 칭함에 대하여 “내가 어찌 문원에서 훌륭히 닦일 것을 기약 하겠는가?”라고 화답하였다. 결구에서는 세인들이 정일현의 작품에 대하여 정일현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음을 전제하고, ‘다시는 시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는 역으로 정일현의 시가 이미 세상에 회자되고 있었다는 말로 읽히는 지점이다.

2.4. 질곡의 인생살이

「정일현시집」에는 악부체 시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시집의 39번째 ~ 51번째 시까지이다. 수록된 순서대로 작품을 제시하면 <行路難>, <蟋蟀吟>, <塞下曲>, <遊仙詞> 2수, <上清詞>, <湘靈鼓瑟曲>, <斑竹詞>, <採蓮曲>, <禱天曲>, <望子曲>, <螟蛉曲>, <桃李曲> 등 총 13수이다. 정일현은 악부의 다양한 작품명 가운데 難, 吟, 曲, 詞 만을 취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악부시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宮怨, 宮詞, 古別離, 艷體, 香奩, 妾薄命 등은 짓지 않았다. 궁월, 궁사, 고별리, 염체, 향령 등의 악부시는 사랑, 이별, 상사, 원망, 근심, 애원, 적막, 비애 등 여성 정감의 화법으로 짓는 악부시의 중요한 제재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대 남성 작가들도 즐겨 창작한 악부체 장르이다. 정일현은 악부체 시를 창작하면서도 여성정감의 궁사나 염체류의 악부체시를 짓지 않았다. 정일현의 유가적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악부체시를 차용하여 시인의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이념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行路難>은 『정일현시집』 39번째에 실린 시이다. <행로난>시는 중국 위진 시대 송나라 포조가 처음으로 19수의 시를 지은 뒤로 제나라의 승 보월, 양나라의 오균, 당나라의 노조린, 장현, 이백 등의 작품들이 이어 나왔다. 그중에서도 이백이 지은 <행로난>이 가장 유명하다. 우리나라 시인들 가운데에서는 고려시대의 이인로, 이승인, 조선의 성현, 임제, 정두경 등 여러 시인들이 행로난 시를 창작하였다. 정두경은 7언고시 형태의 19수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30) 「시경」 위풍 <모과>편에, “나에게 모과를 던져주시니, 나는 패으로 보답하였도다.[投我以木瓜。報之以瓊琚。]”라고 하였다.

행로난 류의 작품은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나 이별의 슬픔, 상심하는 마음으로 ‘君不見’이란 말로 첫머리를 삼는 경우가 많다.³¹⁾

정일현의 질곡의 인생살이를 대변해 주는 시는 다음의 <행로난>시이다.

<세상살이의 어려움>	<行路難>
반평생 어두운 길 한 길로 달려왔나니	半世冥行走一遭
힘든 인생살이 모두 세차고 세찼도다.	夏畦齊郭摠滔滔
이르는 곳마다 기울고 위태로운 촉산의 길이요	傾危到處蜀山路
언제나 거꾸러지고 뒤집히는 무협의 파도였다지.	翻覆當時巫峽濤
해를 당하고야 비로소 가슴 속의 가시를 아나니	見害方知胸裏棘
그 누가 웃음 속의 칼 생각이나 했으리오?	結歡誰測笑中刀
문 닫고 자취 감추어도 오히려 침노하는 고통	杜門鏟跡猶侵苦
무릉도원 찾아가 복숭아 심는 법이나 배웠으면.	思入仙源學種桃

정일현은 <행로난> 시에서 자신의 반평생 삶을 회고하였다. 달려온 삶의 길은 어두웠다. 농사짓기 힘든 땅[齊郭]에서 한여름의 밭일[夏畦]처럼 고통스러웠다. 이르는 곳마다 위태로운 촉산의 길이었고, 무협의 파도처럼 거꾸러지고 뒤집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촉산은 곤륜산맥에 가로막혀 산세가 험준하기로 유명한 곳이고, 무협은 양자강 상류의 협곡으로 물결이 세찬 곳이다. 정일현은 자신의 인생행로가 촉산과 무협을 건너야만 하는 어려운 길이었음을 3,4구에서 표현하였다.

정일현의 인생행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람이었다. 가난, 자식을 잃은 슬픔, 남편과의 사별, 친정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 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타자들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가시[胸裏棘]’, ‘웃음 속에 들어있는 칼[笑中刀]’이었다. 해코지를 당하기 전에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아둔함이다. 굽기야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추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고통은 점점 더해만 갔다. 정일현은 그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 선계에 들어가 복숭아 심는 법을 배우고자 희망하였다. <행로난>은 정일현의 녹록치만은 않았던 삶의 궤적을 표현해 내는데 좀 더 효과적인 악부시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1) 곽무천, 「악부시집」, 권70, 잡곡가사, 행로난 조. “行路難。備言世路艱難。及離別悲傷之意。多以君不見爲首。”

2.5. 철학적 사유와 태극

정일현은 삶 속에서 독서와 봇을 놓지 않았다. 경서와 역사서 중에는 특히 「주역」을 즐겨 읽었는데, 『정일현시집』 21번째에 수록된 7언 율시 <태극> 시 한 편이 주목된다.

<태극>	<太極>
태극은 바로 만물의 근원 되나니	太極斯爲萬物先
염옹의 태극도설 지금까지 전해지네.	濂翁圖說至今傳
기는 천지의 형체 없는 밖에서 운행하고	氣行天地無形外
理는 음양이 나뉘기 전에 갖추어져있지.	理具陰陽未判前
달빛은 온 시내 물 비추니 형상 가히 즐길만하고	月照萬川象可玩
수은은 천 개로 나뉘어도 형체 모두 둥근 것을.	汞分千塊體皆圓
우리들 각각의 마음속에 태극이 있나니	吾人各有心中極
솟구치는 물의 근원 하늘처럼 넓고도 넓구나.	活水源頭浩浩天

『주역』 <계사 상전>에, "역에 太極이 있으니 태극이 兩儀를 낳고, 양의는 四象을 낳고, 사상이 八卦를 낳았다. 팔괘가 길흉을 정하고 길흉이 큰 사업을 낳는다." ³²⁾고 하였다. 이 역의 이치에 오행설을 가하여 새로운 우주관을 수립한 사람이 북송의 주돈이(1017~1073)이다. 주돈이는 <태극도설>에서 만물 생성의 과정을 '태극 → 음양 → 오행 → 남녀 → 만물'의 과정으로 상정하였다. 주돈이는 "만물의 근원은 태극이며, 태극이 실제로 만물을 형성한다."는 사상에 근거한 형이상학을 제시했다. 주희(1130~1200)는 주돈이의 이 설을 계승하여 "천지가 하나의 태극이며, 만물 하나하나가 모두 태극이다."라고 확대하였다. <태극도설>은 수백 년 조선 유가철학의 근간 이론이 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일현의 호 '貞一'은 『주역』 <계사 하전>의 "천하의 움직임은 그 하나에 귀속된다." ³³⁾는 것을 취한 것이다. 조선후기 성리학자 녹문 임성주(1711~1788)는 '貞夫一'의 해석을 "가는 길이 다르고 백 가지의 생각이 있다하더라도, 귀결점은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 곧 만물 전체가 하나의 태극이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³³⁾ 주자의 태극 해석과 같은 맥락이다.

정일현은 <태극> 시에서 염옹의 도설, 곧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언급하고 萬物化生의 근원에 태극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태극은 이기, 음양 이전의 우주론이라 말하였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32) 『주역』, <계사 상전>. “是故。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定吉凶。吉凶。生大業。”
33) 『주역』, <계사 하전>. “天下之道。貞觀者也。日月之道。貞明者也。天下之動。貞夫一者也。”

녹여 내 자신의 시어로 표현한 말이다. 5,6 구에서 “달빛은 온 시내 물 비추니 형상 가히 즐길만하고, 수은은 천 개로 나뉘어도 형체 모두 둥글다.”고 말한 것은, 마치 주자의 “대개 합해서 말하면 만물 전체가 하나의 태극이요, 나누어 말하면 一物이 각기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³⁵⁾라는 이론을 연상케 한다. 정일현은 달[月]이라고 하는 하늘에 띠 있는 統體가 땅에 있는 온 시냇물[萬川]에 내리 비추어 各體를 만들어 내는, 月印千江 천개의 理一分殊의 달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수 천 개의 냉어리로 나뉜 수은도 그 이치는 모두 하나, 둥글다는 것이다. 정일현은 수은과 달, 태극의 원형의 형체를 대비시켜 표현함으로써,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크기로 존재하는 마음의 이치를 비유하였다. 도학의 실체를 뛰뚫고 난 후의 詩境으로 이해된다.

<태극> 시의 마지막은 주희(1130~1200)의 <관서유감>³⁶⁾ 시의 결구 '근원에서 활수가 흘러오기 때문이네.[爲有源頭活水來]'를 點化하여 '솟구치는 물의 근원 하늘처럼 넓고도 넓구나.[活水源頭浩浩天]'로 절묘하게 표현하였다. '浩浩天'은 <태극> 시의 장쾌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대미의 시어이다. 정일현의 '活水源頭浩浩天'은 주자의 '爲有源頭活水來' 보다 시어의 구사가 더 긴밀하다. 시흥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고 통쾌하다 하겠다. 정일현이라고 하는 한 여성시인의 豪放曠達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이상 정일현의 <태극> 시는 정일현의 학문과 철학적 사유가 응축된 심원한 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정일현의 품격과 격조를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이다.

3. 고전 여성문학사의 의의

첫째, 남정일현은 조선시대 사대부가 여성문인사의 마지막 계보를 잊고 있다. 정일현은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나 서세동점의 급격한 시대변화 속에서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시대와 경술국치, 일제침략하의 한국인으로 살다간 여성이다. 갑오 동학과 개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식 등 우리 사회 전역의 사유와 제도가 지각 변동되는 격동기를 살았다. 여성들도 신교육의 수혜를 입으며 전통의 사고와 틀을 벗어 던지기 시작하였고 조선의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되었다. 이른바 '신여성'들은 '구여성'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진출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신여성들은 과감하게 집 밖 신작로 길 위로 떨쳐 나갔다.

35) 『근사록』, 권1 <道體> . “蓋合而言之。萬物統體一太極也。分而言之。一物各具一太極也。”

36) 주희 <관서유감(觀書有感)>:

半畝方塘一鑑開(반무방당일감개) 반 이랑 네모난 뜻이 거울처럼 펼쳐져

天光雲影共徘徊(천광운영공배회)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함께 떠 있네.

問渠那得清如許(문渠那得청여허) 물노니, 어찌 이리도 맑단 말인가!

爲有源頭活水來(위유원두활수래) 근원에서 샘물이 솟구쳐 흘러오기 때문이지.

‘신여자 선언’을 통하여 종래의 조선의 여성들이 남성과 가족제도의 억압 아래에서 노예적 지위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성별과 신분이 평등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여성 해방과 자유연애, 이혼과 재혼이 가능하였다.

정일현은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도 조선의 사대부가 여성 그대로의 문화와 모습을 지닌 채 한시를 창작하였다. 남들로부터 시 자랑 한다는 오해와 보이지 않는 비난도 받았지만, <端午寓興> 시에서 “내 가슴 깊은 곳에 한 편의 시가 있다.[我有胸中詩一篇]”고 고백하였다. 간양리 도운각 자연 공간 사계에 펼쳐지는 경물을 한시로 읊어 시인의 격조를 고양시켰다. 조선 사대부가 여성 한시의 전통 그대로 한시를 지은 마지막 세대의 여성인물이 되었다.

둘째, 긍정과 희망의 豪放曠達한 詩境을 구축하였다. 『정일현시집』 소재 65수의 한시에서는 여성 정감의 자탄, 공규의 외로움, 슬픔, 자상, 고독, 그리움 등의 정서는 보이지 않는다. 건강하고 밝음의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일현의 학문적 완숙과 자신감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五岳> 시에서 노래한 바, “오악이라 일컫는 이름만 들었더니, 다행히 동방에 살며 태평시절 누리네. 단군께서 땅을 여니 천리의 국경이요, 기자의 용성한 교화 팔조에 행해졌지. 서양 선박 요괴로운 기운 걱정들 마오, 봄 누대에 상서로운 해 밝게 비치리니. 신령스런 예언 억만 년을 기약하나니, 머지않아 산과 바다 맑게 씻길 것임을.”이라고 노래하였다.

서세동점의 혼란기를 당하여 백성들은 혼돈과 울분, 절망에 빠져 있었다. 정일현은 우리 동방은 저 멀리 천리의 국경에 단군이 나라를 연 태평스런 곳이다. 아무리 요괴스러운 서양 선박들이 밀려 와도, 상서로운 해와 달이 밝게 비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가 맑게 씻길 것이라고 희망을 노래하였다.

셋째, 조선후기 기호학파 여성성리학사에서 진일보한 이론을 피력하였다. 조선후기 김호연재(1681~1722), 임윤지당(1721~1793), 강정일당(1772~1832)으로 이어지는 여성성리학자들이 있다. 이 여성지식인들은 성리학 이기론의 기초가 되는 태극, 음양, 오행, 남녀, 만물의 이론에 정통하였다. 음양의 성질, 남녀의 행실이 다름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하늘이 명부한 성품에는 애당초 남녀의 다름이 없고, 성인을 따르려는 뜻 역시 남녀의 차별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37) 김호연재, 「호연재유고」<정심장>。“陰陽異性。男女異行。女子非敢妄追聖賢之遺風。然而嘉言善行教化之明。豈可嫌男女異宜。而不思慕效哉。” 임윤지당, 「윤지당유고」, <극기복례위인설>. “噫。我雖婦人。而所受之性。則初無男女之殊。…… 而其慕聖人志則切。” 강정일당, 「정일당유고」, <행장>. “天命之性。初無男女之殊。婦人而不以任姒自期者。是亦自棄也。”

자신들이 성인을 따르려는 뜻이 매우 간절하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³⁷⁾ 여성으로서 성인되기를 기약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일현은 음과 양,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이해와 이론에서 진일보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위의 <태극> 시에서 살펴본 바, 여성 남성의 문제 너머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로 사유가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큰 틀의 우주론의 관점에서 성리 철학을 이해하고 사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일현은 사서삼경과 역사서, 특히 「주역」을 죽기 직전까지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내외 친족으로부터 ‘대가’ 소리를 들었다. 역의 원리와 우주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가치를 ‘은혜와 의리’의 실천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인간 주체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사람에 대하여 극진하게 대하였다. 사람에 대한 의리는 양자, 부모, 시동생, 시누, 어린 손자, 여종에게 까지 미쳤다. 여종을 읊은 시 <憶寶婢>에서는 여종을 제왕의 보배로 비유하여 칭송하기도하였다.

* 참고문헌

1. 자료

- 「근사록」
- 「녹문집」(임성주)
- 「악부시집」(곽무천)
- 「역주 정일현시집」, 문희순 역, 예산문화원, 2015.
- 「의령남씨족보」, 대종회, 가승미디어, 2006.
- 「조선역대여류문집」 1~4, 민병도 편, 을유문화사, 1950.
- 「조선조여류시문전집」, 허미자, 태학사, 1988.
- 「주역」,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1998.
- 「창녕성씨수출당공파보」, 필사본, 가문소장.

2. 논저

- 김여주, 「남정일현 시세계의 특징」, 「한문고전연구」 3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pp. 103~135.
- 문희순, 「호서지역 사대부가의 여성교육과 여성문인의 배출」, 「인문학연구」 통권 88호, 2012, pp. 39~72.

박성희, 「조선 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자연시 연구: 서영수합, 김삼의당, 남정일현을 중심으로」,
경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송준호, 「한중일 여류 한시선」, 태학사, 2013, 176~184쪽.

이희목, 「이건창 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3. 인터넷자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조선 후기 충남의 3人3色 여성 한시

문희순(충남대)

1. 호연당 위의 호연한 기상! : 김호연재(金浩然齋, 1681~1722)

1) 가계 및 생애

김호연재(1681.8.19.~1722.5.15.)는 대전이 배출한 조선 최고의 여성문인으로 안동김씨이다. 남편은 소대현 송요화(宋堯和, 1682~1764)이고, 자녀는 1남 1녀를 족보에 올렸다. 1남은 송익흠(宋益欽, 1708~1757), 1녀의 남편은 김치공이다. 아버지는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낸 김성달(金盛達, 1642~1696), 어머니는 여성문인 이옥재(李玉齋, 1643~1690)이다. 5남 4녀의 여덟 번째 자식으로 태어났다. 출생지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이다. 김호연재의 고조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은 병자호란 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충신지사이다. 외고조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조선중기 문장사대가로 이름을 드날렸다.

김호연재는 1699년(숙종25) 10월 16일 19세의 나이로 송요화와 혼인하였다. 김호연재는 혼인 후 두 공간에서 살았다. 첫 집은 시부모가 살던 ‘법천’이라는 곳이었다. 법천에서 15년 남짓 살다가 송촌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김호연재의 친정 형제들은 김호연재를 ‘법천누이[法泉妹]’라고 불렀다.

김호연재는 29세 즈음에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토대로 스스로를 경계한 「자경편(自警篇)」 6장 <정심장(正心章)> · <부부장(夫婦章)> · <효친장(孝親章)> · <자수장(自修章)> · <신언장(慎言章)> · <계투장(戒姤章)>을 지었다. 이 「자경편」 6장은 자신의 수양과 실천 · 궁행을 위해 쓰여 졌으며, 그 기저에는 거의 부부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 「자경편」은 김호연재의 심성론과 수양론을 기록한 철학적 사유의 응축이다. 「자경편」은 한문본과 한글본, 다시 한문본으로 번역 · 유통되면서 송씨 집안 여성과 남성들의 모범적 독서물이 되었다. 후손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읽었다.

김호연재는 여성교육자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자경편>에서 “인륜을 밝히고 예의를 잡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능하지 못한다.”³⁸⁾ 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들 익희은 물론이고, 당질 늑천 송명희·한정당 송문희 형제들과 함께 경서와 사기를 강론하였고, 한시도 일일이 비점을 찍으며 평론해주었다고 한다.³⁹⁾ 송준길 가에서 김호연재는 문인으로서 가정경영자로서 존중 받았다. 문중에서 김호연재에 대하여 공경하고 흠토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한다.

2) 활동 및 업적

김호연재의 시집은 몇 종류가 있다. 「오두추도(鰲頭追到)」 · 「호연재유고(浩然叢遺稿)」 · 「호연재시집(浩然齋詩集)」 · 「호연재유고(浩然齋遺稿)」 · 「호연진유고」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집들의 존재양상은 김호연재의 한시가 시대 송씨 가문에서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향유 · 유통되었다. 김호연재의 9대손 송용억이 1995년에 발간한 『호연재유고浩然齋遺稿』는 이러한 시집들을 정리하고 여기에 『자경편』, 부록으로 외손 김종최의 <사실기>, 아들 송익희의 <유사>, 종질 송명희의 <천장시제문>, 친정 조카 김겸행의 <제문>2편, 사위 김치공의 <제문>, 김종최의 <제문>2편, 김원행의 <소대현공묘표> 등을 실어 발간하였다. 현재 호연재의 시작품의 전모는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여기에 실린 호연재 한시 작품 수는 244수이다.

김호연재는 ‘浩然之氣’의 실현을 꿈꾼 여성군자이다. 마흔 두 살의 나이로 죽기까지 성현을 배우고 따라 군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강조하였다.

<자상自傷>

아까워라, 이내마음
탕탕한 군자의 마음.
겉과 속 숨김없으니
밝은 달이 흥금을 비추도다.
맑고 맑음은 흐르는 물과 같고
깨끗하고 깨끗함은 흰 구름 같아라.
화려한 사물 즐겨하지 않고
뜻은 구름과 물의 자취에 있도다.
속된 무리와 하나 되지 못하니

38) 『자경편』, 정심장제일. “明人倫秉藝義, 不教則不能”
39) 송명희, 『천장시제문』. “探討經史, 點評詩句”

도리어 세상 사람들 그르다 하네.
규방 여인의 몸 됨에 마음상한 것
창천은 가히 알지 못하리라.
아, 할 수 있는 일 그 무엇이랴!
다만 각각의 뜻 지킬 뿐이지.

<自傷>

可惜此吾心(가석차오심), 蕩蕩君子心(탕탕군자심).
表裏無一隱(표리무일은), 明月照胸襟(명월조흉금).
清清若流水(청청약유수), 潔潔似白雲(결결사백운).
不樂華麗物(불락화려물), 志在雲水痕(지재운수흔).
弗與俗徒合(불여속도합), 還爲世人非(환위세인비).
自傷閨女身(자상규녀신), 蒼天不可知(창천불가지).
奈何無所爲(내하무소위), 但能各守志(단능각수지).

<만음 1>

가슴 속에 천고의 뜻을 씻고
취하여 누워 꾀꼬리 소리를 듣노라.
서늘한 바람 문에 드니 가을이 가깝고
흰 달 뜰에 가득하니 밤 기운이 맑도다.
녹수는 캄캄 울타리 밖에 흐르고
청산은 은은히 난간 앞에 펼쳐있네.
공명은 다만 인간사 한바탕 꿈일 뿐
무엇을 구구하게 세상과 다투리오.

<謾吟 一>

滌蕩胸襟千古情(척탕흉금천고정), 陶然醉臥聽流鶯(도연취와청류앵).
涼風入戶秋期近(양풍입호추기근), 白月盈庭夜氣清(백월영정야기청).
綠水冷冷籬外在(녹수냉냉이외재), 青山隱隱檻前生(청산은은함전생).
功名祇是黃梁夢(공명지시황량몽), 何事區區與世爭(하사구구여세쟁).

<만음 2>

시내와 산에 밤은 고요한데 시간은 오래되었고
국화 꽃 이슬 머금어 작은 뜰이 향기롭구나.
고갯마루 북두성 기울어 구름 꽂 흘어지고
지는 달은 마루에 가득한데 가을 빛 서늘하구나.
좋은 술 반쯤 깨니 지기(志氣)가 트이고
새로운 시구가 생동하니 세상의 뜻을 잊노라.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탄식하니 이 몸은 무엇인가
즐거울 것도 슬플 것도 없이 그저 술에 취한 한 미치광이인 것을.

<謾吟 二>

夜靜溪山玉漏長(야정계산옥루장), 黃花浥露小庭香(황화읍로소정향).
樞星倒嶺雲華散(추성도령운화산), 夜靜溪山玉漏長(야정계산옥루장).
黃花浥露小庭香(황화읍로소정향), 落月盈軒秋色涼(낙월영현추색량).
微酒半醒志氣濶(미주반성지기활), 新詩欲動世情忘(신시욕동세정망).
自歡自歎身何似(자환자탄신하사), 無樂無悲一醉狂(무락무비일취광).

<만음>

인간의 사십 년을 점검하니
가난과 근심 질병의 고통이 서로 이어 있도다.
가난과 부귀, 영광과 치욕이 다 내 명이니
다만 몸과 마음을 살펴 성현을 배우리라.

<謾吟>

點檢人間四十年(점검인간사십년), 貧憂疾苦互相連(빈우질고호상련).
窮通榮辱皆吾命(궁통영욕개오명), 但省身心學聖賢(단성신심학성현).

김호연재는 시아버지 송병원(1651~1690) 사후에 혼인하였는데, 시숙부 송병익(1655~1718)을 시아버지를 섬기듯 하였다. 1718년 송병익이 전염병에 걸려 진잠에서 피접하다 운명하였다.

김호연재는 “상사가 이미 사람들이 기피하는 병에서 났으니 누가 기꺼이 들어가 보는 자가 있겠는가. 만일 우리 계부의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은혜를 이 때 보답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날을 기다리겠는가.”라고 말하고 즉시 달려가 친히 의복을 점검하여 염습하고 미음과 죽을 갖추어 숙모와 모든 시숙들을 보호하였다고 한다. 이때는 전염병이 점점 더 기승을 부려 죽는 사람이 날로 늘어 날 때 이었다고 한다. 김호연재는 그러나 거처를 태연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하였다고 한다.

종들을 부릴 때에도 위엄과 사랑을 아울러 보여주었고, 각각의 능력에 맞게 일을 부과하여 감동하여 떠받들었다고 한다. 송병익의 부인 완산이씨(1675~1756)는 “시경에서 이른바 요조숙녀는 지금 우리 질부가 합당하다”라고 극찬하였다고 한다. 자손과 후손들의 김호연재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서와 사기를 밝게 공부하셨다.⁴⁰⁾
- ②. 경서와 사기를 널리 통달하고 식견과 취미가 고명하여, 사물에 얹매이지 않고 세속을 뛰어 넘으셨다.⁴¹⁾
- ③. 조비는 천성이 뛰어나게 영리하셨다. 모부인에게 수학하고 자식과 조카들을 위하여 혹 시 짓는 법을 가르쳐주셨다.⁴²⁾
- ④. 경서와 사기를 탐구하여 토론하고, 시구도 일일이 점을 찍으며 평론해주셨다.⁴³⁾

등의 기술처럼 평가하였다. 김호연재의 학문과 인격,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김호연재의 증손부 청송심씨(青松沈氏, 1747~1814)는 1814년(갑술, 순조14)에 아들 송규희(宋奎熙)의 부임지 고령현에서 국역 한시집 「호연진유고」(曾祖考詩稿 상·하권)를 필사하였다. 「호연진유고」는 한시집 「호연재유고」를 한글로 음사하여 읽고 번역한 형태이다. 이 한글 번역본 시집의 존재로 인하여 김호연재의 한시가 244수로 복원된다. 한시집 「호연재유고」에는 없고 한글번역시집 「호연진유고」에만 있는 시는 140편이 넘는다.

40) 「자경편」, 정심장제일. “明人倫秉藝義, 不教則不能”

41) 김종최, <사설기>. “夫人, 博通經史, 識趣高明, 優然出俗.”

42) 송용억, <호연재유고>跋. “祖妣天性穎悟, 受學於母夫人, 而爲其子姪, 或有示其作詩之法.”

43) 송명흠, <천장시제문>. “探討經史, 點評詩句”

2. 미쳐 날뛴 완적도 분명 나와 같았을 것임을!

: 오청취당(吳淸翠堂. 1704~1732)

1) 가계 및 생애

오청취당(1704.8.6.~1732.5.15.)은 서산의 여성문인으로 해주오씨이다. 경기도 안성의 속현인 양성현(오늘날의 평택 포승)에서 아버지 오기태와 어머니 여홍민씨의 딸로 출생하였다. 22세 때 서산시 읍암면 유계리 한다리 경주김씨 김한량(金漢良, 1700~1752)과 혼인하여 29세에 요절하기까지 서산의 여성으로 살았다.

청취당의 시고조 총민공 김홍익(金弘翼, 1581~1636)은 병자호란 시에 순절한 충절지사이다. 청취당이 김한량과 혼인 할 당시 시가의 형편은 삼대를 거치는 동안 과거를 포기하거나 과거에 응시했더라도 합격되지 못하는 불우의 처지가 되어 오래 동안 벼슬살이와는 인연이 없는 집안 이었다. 실질적으로 가문의 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다. 남편 김한량도 관직에 나아 가기를 일찍 포기하고 향리에 은거하며 농사를 경영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처지에서 보면 평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청취당의 친정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청취당은 여섯 살 때 어머니 민씨가 돌아가자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가정 일을 도왔다. 제대로 공부할 형편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천재적 기질과 욕심으로 한번 들으면 바로 외워 내는 탁월한 두뇌를 가졌다. 청취당은 가사를 돋는 여가에 유가의 경서와 역사서를 독학 하다시피 하였는데, 깊이 있는 공부는 문집 『청취당집』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청취당은 스물 둘에 혼인하여 25세와 26세 때 연년생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죽었다. 29세에 아들 김언주를 낳자마자 병고에 시달리다 스물아홉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 청취당의 짧은 생애 속에서 술과 시는 맷힌 근심을 풀어 주었다. 고독과 우울한 심사를 덜어 낼 수 있는 휴식처요 이상향이었다.

청취당이라는 호는 청취당이 스스로 지은 것이다. 해주오씨의 관향이 수양이고, 수양 땅은

중국 주나라 고죽군의 아들 백이(伯夷) · 숙제(叔齊)가 고사리를 캐 먹다가 죽은 절의의 공간 이므로 성자의 맑은 성품과 대나무의 푸른빛을 취해서 '청취당(淸翠堂)'이라고 지었다고 말하였다.⁴⁴⁾ 그리고 '경설국(慶雪菊)'이라는 별호도 있다. 청취당은 하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무심하게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지와 잎이 무성한 '동국의 계수나무'로 자부하였다. 청취당은 자신이 읽고 공부한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도가류 서적들도 널리 탐독하여, 폭넓고 고양된 정신세계를 가졌던 내포의 여성으로 평가된다.

2) 활동 및 업적

『청취당집』에는 182수의 한시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오청취당의 한시는 크게 네 가지로 주제가 분류된다. ①고독과 동경 - 사친 · 사향시, ②일상과 일탈 - 영물 · 유람시, ③욕망과 좌절 - 자탄 · 병중시, ④꿈과 환상 - 몽중 · 유선시이다. 청취당은 내포 지역의 여성으로 살면서 나루 · 달 · 구름 · 바람 · 국화 · 봄 밤 · 꿈 · 마고(麻姑) 등을 사랑하였다. 때로는 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자신에게 맞닥뜨린 삶의 여정을 한시작품으로 승화시켰다.

(1) 고독과 동경 - 사친 · 사향시

<어버이 생각>

규중에 매인 몸 반세상의 인간으로
시집온 지 두 해 문안하지 못했네.
강가에 푸른 풀빛 나그네 시름 오래고
창밖엔 달 밝아 사모의 정 새롭구나.
먼 꿈 어찌 산수 막혀있다 방해 되리오
나는 혼 왕래 빈번함을 꺼려 않도다.
머나먼 고향 땅 어디이뇨
망망한 일엽편주 한진이 막혀있구나.

44) 박종규, 「청취당집」서. “吳氏。貫於首陽。而首陽乃孤竹君子採薇之所。故取其聖之淸竹之翠。因以自號”

<思親>

體縛深閨半世人(체박심규반세인), 于歸二載未寧親(우귀이재미령친).

江濱草綠羈愁舊(강빈초록기수구), 憫外月明戀慕新(창외월명연모신).

遠夢豈妨山水阻(원몽기방산수조), 飛魂不憚去來頻(비흔불탄거래빈).

家鄉迢遙知何處(가향초체지하처), 一葦茫茫隔漢津(일위망망격한진).

(2) 일상과 일탈 - 영물 · 유람시

<백마강을 지나며>

남으로 내려와 잠시 마음 상한 곳 지나려하니

초야에 묻힌 금릉 땅, 옥수가⁴⁵⁾엔 가을이 깊었네.

노기어린 물결 오히려 회고의 한 뿐어내고

찌푸린 산 빛 오늘에 이르도록 근심을 떠었어라.

처량한 왕조의 기운 창오⁴⁶⁾의 달 빛

지나는 행인 백마강 언저리 가리키네.

술 불러 흥망사 알고자하니

풍연십리 백사장에 갈매기 나는 것을.

<過白馬江有感>

南來暫過傷心處(남래잠과상심처), 草沒金陵玉樹秋(초몰금릉옥수추).

水怒猶噴懷古恨(수노유분회고한), 山顰如帶至今愁(산빈여대지금수).

淒涼王氣蒼梧月(처량왕기창오월), 指點行人白馬區(지점행인백마구).

呼酒欲知興廢事(호주욕지흥폐사), 風烟十里白沙鷗(풍연십리백사구).

(3) 욕망과 좌절 - 자탄 · 병중시

<홀로 위로하며>

부질없이 일곱 해 우환 많았기에

오랫동안 가경의 기약 어기었구나.

명월은 날보고 웃으며 난간 구석 비추고

청풍은 날 책하며 주렴에 부딪치도다.

술 병 끌어안고 홀로 한 잔 술 기울이며

붓 잡아 두어 수의 시를 엮어 본다지.

이 어찌 부도가 아닌 줄 모르리오.

미쳐 날뛴 완적도 분명 나와 같았을 것을.

<自遣>

徒緣七載憂患多(도연칠재우한다), 靜裏久違佳景期(정리구위가경기).

明月笑余窺檻曲(명월소여규함곡), 清風責我拘簾垂(청풍책아구렴수).

引壺自酌一盃酒(인호자작일배주), 把筆做工數首詩(파필주공수수시).

豈不知其非婦道(기불지기비부도), 猶狂阮籍正如斯(창광완적정여사).

(4) 꿈과 환상 - 몽중 · 유선시

<내가 부러워하는 것>

평생에 무엇이 부러운가

남악에 살고 있는 여선일세.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세상사 어려움에 얹매지 않네.

놀을 먹고 야윈 뼈 길러

학과 어울려 가벼운 몸 싣도다.

우습구나, 삼십도 못 된 이 몸

고운 얼굴 점차 봄기운 잃어가네.

45) 망국의 노래를 가리킨다. 南朝 陳의 後主가 정사는 들보지 않고 매일 貴妃 등과 함께 노닐면서 여러 비빈들과 여학사들에게 새로 지은 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부르게 하다가 끝내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그 곡 가운데 전해 오는 ‘玉樹後庭花’를 줄여서 이른바 ‘옥수가’라고 부른다. (『退溪先生文集』第四十三卷跋. “玉樹案陳後主遊宴。與諸妃嬪女學士共賦詩。采其艷麗者。被以新聲。有玉樹後庭花曲”。) 금릉은 진의 수도이다.

46) 호남성 영원현의 지명으로, 순임금이 남방을 순행하다 창오에서 돌아갔다.

<有所羨>

生平何所羨(생평하소이), 南嶽女眞眞(남악녀진진).
脫屣人間苦(탈사인간고), 不婁世事辛(불영세사신).
餐霞養瘦骨(찬하양수골), 調鶴馱輕身(조학태경신).
笑我三旬內(소아삼순내), 紅顏漸減春(홍안점멸춘).

(5) 자전적 시

<병중에 회포를 펴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 병이 몸을 휘감아 여러 날 누웠으니
창밖의 긴 봄 빛 괴로이 원망하노라.
이불 끼고 머리 들어 동산을 바라보매
엊그제 만발했던 꽃 남은 향기 없구나.
동풍은 불어 붉은 꽃 비 흘뿌리고
온 땅 가득 분분한 백설의 향기로다.
인생이 이에 이르러 젊은 시절 얼마던가?
지난 일 회고하매 한스런 일 많도다.
나는 수양 땅 오씨 가문 정숙한 난초
갑신년 가을 초육일에 태어났다지.
우리 집 첫째로 태어나 성장하니
비록 여아지만 손바닥의 옥 같았다오.
어린 나이에 홀연 어머님 돌아가시니
하늘이시여, 어찌 그리 무식하단 말입니까?
아우 나이 겨우 세 살 나의 나이 여섯 살
빈 방에서 끌어 앓고 어머니 부르며 통곡하였지.
삼년동안 흰 포장 안에서 울부짖으니
처량한 달 슬픈 바람 적막하기만 하였네.
점점 자라 나이 들어 천리를 알게 되고
때마다 추모하는 마음 더욱 망극하였으니

이로부터 봄 날마다 사물에 느끼는 감회
해마다 그 몇 번이나 눈물로 가슴 적셨던가?
부모님 날 낳으시고 조부모님이 살려내셨으며
머리털 다 뽑아도 갚을 수 없는 할머니 은혜
겹겹의 무협 봉우리 일 년을 제하고
아, 하늘은 어찌 그리도 빨리 할머니 앗아갔는가?
이 울적한 마음 누구와 더불어 의논 하며
이 몸의 형제 어디에 의탁하랴?
비록 운명은 박하나 재주는 타고나
한 번 들어 기억함은 외가의 인맥이로다.
구차히 신선을 배우고자 황정경을 외운 것 아니니
한 자도 읽지 않아 어찌 터득할 수 있었던고?
윤씨 할아버지 관상 보기 잘 하셨나니
어찌 여자로 태어나 녹록한가 말씀하셨지.
미간은 강산의 기운 억누르지 못하고
흉중엔 운해의 원류 얼마나 저장했던가?
어찌타, 이를 지녀 남아장부 되어나서
인간에 솟아 문호를 빛내지 못하는가?
가소롭다, 이 말씀 어이 감당하리?
언문 익히는 여가에 글자 익혔다지.
하늘 위 문창성의 정기 받고
비단 주머니엔 강과 바다 담아 저장하네.
어리석은 마음 더욱 어미의 도리 배우나니
두자미는 아내와 딸 명철하다 자랑 말지어다.
가는 실 오래 다뤘으나 마음 이미 원대하며
바늘은 손 가는대로 맡겨둔 채 월나라 생각
몸은 규방에 있어 즐겨 자취 감추고
기품은 가을하늘과 고결함을 다투다네.
가난은 안희보다 더하고 어린 동생 많으니

재물이 나의 몸에 미치지 못하였고
 스스로 길쌈하여 때의 옷을 만드나니
 상자 속엔 남은 옷 없고 값진 재물 없구나.
 열두 살 예쁜 미소 짓던 선녀의 손
 열네 살에 직녀의 복 가지고 놀았지.
 타고난 성품 변화한 빛 즐겨하지 않으니
 눈썹 얇게 그리고 마음을 닦으며
 평생토록 백운의 뜻 말아 펴내어
 어지러운 세간의 출세 구하지 않노라.
 옥이 묻혀 어찌 오랫동안 빛 감출 수 있으랴?
 용천검의 광채 견우 북두 어둡게 하긴 어려운 일.
 집이 가난하니 세태 쫓을 수 없으나
 마음 고요하니 타인의 능멸 도리어 달게 받나니.
 큰 나무엔 좀 벌레 많다 다투어 떠들어 대고
 혼인한 일 시끄럽게 말들도 많았다네.
 그 사이의 액운 말한들 무슨 이익 있으리?
 인간 세상 그 가운데 참 스승 만나기 어렵도다.
 일마다 경솔하여 그르쳤던 지난 날 깨닫고
 우뚝 두각 나타낸 그 때의 실수 문득 뉘우치노라.
 밝은 임금 능히 어진 신하 지키지 못한다면
 훗날 어떻게 스스로 빛 발할 수 있으리?
 기회 엿보아 혹 종사할 일 있으리니
 보좌를 잘 해낸다면 태평시대 되리라.
 그렇지 않다면 혼신짝 버리듯 시속 떠나리니
 어찌 세간의 오랜 고생 달게 여기랴?
 무신 · 기유 양년 자식 잃은 슬픔
 아, 하늘이시여 거듭된 재앙 어찌 그리 가혹하십니까?
 구곡간장 맷힌 슬픔 불행을 이루고
 불행은 병을 이뤄 양약이 없구려.

약하고 허한 몸 기력이 절로 알며
 초췌히 병든 얼굴 거울이 먼저 눈치 챘지.
 가슴속의 울적한 회포 글로 써내고자하나
 손이 떨려 글자 못 이루고 기운 옹색하네.
 병중에 배나 생각나는 어버이 말씀
 세세토록 죽는 날까지 간직한들 어이 죽하랴?
 어버이 은혜 산과 바다보다 중한데
 더구나 이씨 어른 댁 보살펴 주심 받았다네.
 그윽이 생각건대 세 집에 보답한 것 하나 없고
 천지간에 이 한 몸 용납 받은 죄 크도다.
 훌륭한 가문에 의탁하여 왜 이리 고독한가?
 이제토록 일정한 처소 얻지 못했음이리라.
 긴 세월 고통스런 병 돌봐주는 이 없고
 시중드는 아이 등잔 밑에 깜빡깜빡 조네.
 하늘이 어찌 이토록 나에게만 무심 하리오?
 총명한 아이 주어 길이 만년 의지하게 하시는 도다.
 그대는 보았는가, 잠룡이 적시에 비 만나는 것을!
 분명코 면 훗날 연못 속 물건만은 아니리라.
 (팔월 육일은 부인의 생신 일이고, 윤조는 부인의 진외종조이다)

<病中述懷自遣>

一病纏身屢日臥 苦嫌牕外春暉長 擁衾擡頭望園中 再昨滿花無餘芳
 東風吹送紅雨洒 滿地紛紛白雪香 人生到此少壯幾 欲說往事多憾傷
 我本首陽吳淑蘭 生於甲申秋初六 吾家我先初生長 雖曰女兒掌上玉
 髮齡奄忽背慈闌 其乃蒼天太無識 弟才台年我卿年 相携空堂號母哭
 三年號哭素帳裡 月淒風悲長寂寞 漸長中歲天理知 感時追慕尤罔極
 自此逢春觸物懷 幾度年年淚沾臆 生我父母活我祖 擢髮難量王母澤
 巫峽重峰除一年 天奪祖妣何太速 此心鬱結與誰論 此身弟兄何所托
 雖是命薄才不借 一聰輒記生外脉 倘非學仙誦黃庭 不讀一字何能得
 尹祖當年善相視 曰何爲女在碌碌 眉間不勝江山氣 胸裡幾貯雲海源
 胡不持此爲男兒 賽出人間光戶門 可笑是言不敢當 諺文餘暇字拾掇
 鍾得天上文昌精 錦囊將貯江海括 愚心自能倍學母 杜子莫誇妻女哲

長使細縷心已大 持針信手意在越 身藏閨閣甘歛迹 氣與秋天爭高潔
 家勝顏貧多幼弟 餘資不能及吾身 自辦紡績及時衣 箱無餘衣財無珍
 三四笑倩素娥手 二七窺弄織女梭 天性不肯繁華色 淡掃蛾眉心切磋
 平生捲舒白雲志 不求聞達亂世間 埋玉那得長蘊彩 龍光難晦牛斗干
 家貧不逐今時態 心靜還甘人凌蔑 爭言喬木多妖蠹 紛道絲蘿信可疑
 其間厄運言何益 人世難逢此中師 自覺昨非事事輕 却悔當日誤出頭
 明君不能保忠身 日後何如自色斯 窺機倘有可從事 能佐將然太平時
 不然脫魄謝時去 豈甘世間長苦辛 猿鷄兩年喪明慟彼蒼苔禍何其酷
 慾結腸曲隱成禍 禍因成疾無良藥 弱質清虛氣自知 病容憔悴鏡先覺
 欲書胸中鬱積懷 戰不成字氣壅塞 病裡倍思尊堂言 世世殞結那可足
 親恩自然山海重 況復荷眷李長宅 幽想三家無一報 容身覆載此罪大
 托跡盛門何躊躇 祇今不得定處所 苦病長日無護人 傭多侍兒眠殘燈
 天豈於我無心獨 永授石麟萬春憑 君看潛龍會得雨 不是他日池中物
 (八月六日, 夫人生辰, 尹祖, 夫人真外從祖)

3. 우리들 각각의 마음속에 태극이 있나니! :

남정일현(南貞一軒, 1840~1922)

1) 가계 및 생애

남정일현(1840.12.17~1922.11.14)은 여성문인·여성철학자이다. 아버지는 군수를 역임한 의령 남씨 남세원(南世元, 1810~1888)이고, 7대조가 약천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다. 창녕성씨 성대호(成大鎬, 1839.10.21~1859. 2.7)와 혼인 후 충남 예산 간양리에 거주하였다. 정일현의 시가는 성수침(成守琛, 1493~1564)과 성훈(成渾, 1535~1598)의 직계 후손이다. 시할아버지는 예조판서와 한성판윤을 역임한 성원목(成原默, 1785~1865)이고, 시아버지는 현감을 역임한 성재선(成載璿, 1811~1882)이다.

정일현은 세 살 때 한글을 깨우칠 정도로 영민하였다고 한다. 정일현의 할아버지 남영주(南永周, 1788~1856)는 날마다 한자 수십 자를 써서 벽에 걸고 정일현에게 일과를 삼게 하였는데 한 번 보면 곧 외었다고 한다. 16세에 성대호와 혼인하기 전까지 유교의 경전과 역사서를 두루 섭렵하였다.

정일현은 한문에 능통하여 능수능란하게 한시를 구가한 한문학 마지막 세대이다. 한글문학 장르인 가사작품 까지 창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문학사에서는 보기 드문 이중 언어의 문학 작품을 저술한 여성 문인이다. 이는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를 창작한 남구만과 한시평론집 『회은쇄록(晦隱瑣錄)』의 저자 남학명(南鶴鳴, 1654~1722), <속동도악부>를 지은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이 각각 7대~5대 선조가 되는 가계전통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일현은 어린 아이 때부터 조부로부터 차별 없이 교육받았다. 정일현은 통달한 시경과 법도로 문중의 존중을 받았고,内外 집안 남성들이 정일현의 시를 암송하기도 하여 ‘대가(大家)’로 존중받았다.

정일현은 혼인한 지 4년 만에 남편이 죽는 비운을 맞았다. 이 때 남편 성대호는 스물한 살, 정일현은 스무 살 밖에 되지 않았다. 정일현은 남편이 죽자, 본인도 따라 죽으려고 결심하였다. 조용히 죽을 날을 기약하고 있던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을 틈타 쌓여있던 나뭇단에 불을 지르고 뛰어 들었다. 그런데 정일현의 시어머니 전의이씨(1811-1865)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 머느리를 구출하였다. 정일현의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고 난 뒤,

며느리가 자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다고 한다. 불속에서 며느리를 구해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껴안고 한없이 흐느껴 통곡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서로 의지하며 같이 살다 죽는 것이 너의 효니라.

너는 네 남편이 임종 시에 한 말을 잊었느냐?”

라고. 결국 시어머니가 어린 며느리의 목숨을 살려낸 것이다.

정일현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까지, 고독하고 힘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학문을 선택하였다. 자신의 집에 ‘정일(貞一)’이라는 편액을 걸고 스스로 호를 삼았다(성태영, <선고비합장묘지>). ‘정일(貞一)’은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 나오는 말이다. 뜻은 ‘정부일(貞夫一)’ 곧 사물의 변동은 무궁하나 마침내 하나의 이치(一理)로 돌아 간다는 것이다. 거주하는 집의 이름은 ‘도운각(道雲閣)’이라 이름 지었다. 도운각이라는 이름은 간양리 도고산(道高山, 482m)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집의 호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 정일현이 살았던 예산 간양리 구두물은 도고산(道高山)과 덕봉산(德峯山)으로 둘러싸여 있다.

정일현은 집안사람 성진호의 아들 성태영을 양자로 삼았는데, 모자관계가 극진했던 것으로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어머니 정일현은 아들 가르치기를 매우 부지런히 했고(教之甚勤), 아들 성태영은 어머니 정일현을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盡誠母)다고 한다. 정일현은 풍담(風痰) 증으로 여러 달 병석에 있다가 1922년 11월 14일 운명하였다. 정일현의 묘소는 아산 농온리에 있다.

2). 활동 및 업적

『정일현시집』은 정일현이 죽고 난 뒤 아들 성태영이 엮었다. 『정일현시집』에 한시 65수와 제문 <제척숙모숙인파평윤씨(祭戚叔母淑人坡平尹氏)> 1편, 타인이 지은 부록작품 6편으로 되어있다. 타인의 작품으로는 아들 성태영의 <선고비합장묘지>, 이건창의 <정일현시집서>와 한시 <詠五律呈道雲閣老姊> 1수, 이건방의 <묘표>, 이건승의 편지 <上道雲閣書>와 <발문>이다.

『정일현시집』은 정일현 생존 당시에 이미 완성된 형태의 정일현시집이 도모되었었는데, 갑오년 동학(1894) 때 정일현의 시고가 거의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정일현은 동학 때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피신하며 시고를 불 속에 던지고 “나의 시를 남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아들 성태영이 난을 피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옛 원고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 그 원고를 수습해서 『정일현시집』 1권을 엮어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본다면, 정일현의 작품은 지금 전해지는 작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일현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작품 65수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한시작품의 내용은 ① 태극의 유가철학, ② 양자 입후와 모정, ③ 친정부모의 그리움, ④ 간양리의 사계와 풍경, ⑤ 질곡의 인생살이, ⑥ 탈속의 선계 등경이다.

정일현은 유가의 경서를 생활 수양으로서 공부하고, 유교적 여성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정일(貞一)’이라는 자호에서 알 수 있다. 정일현은 특히 『주역』을 즐겨 읽었는데, <태극>이라는 시 한 편이 주목된다.

(1). <태극(太極)>

태극은 바로 만물의 근원 되나니
염옹의 태극도설 지금까지 전해지네.
기(氣)는 천지의 형체 없는 밖에 운행하고
이(理)는 음양이 나뉘기 전에 갖추어져있지.
달빛은 온 시내 물 비추니 형상 가히 즐길만하고
수은은 천 개로 나뉘어도 형체 모두 둉근 것을.
우리들 각각의 마음속에 태극이 있나니
솟구치는 물의 근원 하늘처럼 넓고도 넓구나.

<太極>

太極斯爲萬物先(태극사위만물선), 濂翁圖說至今傳(염옹도설지금전).
氣行天地無形外(기행천지무형외), 理具陰陽未判前(이구음양미판전).

月照萬川象可玩(월조만천상가완), 梗分千塊體皆圓(홍분천괴체개원).
吾人各有心中極(오인각유심중극), 活水源頭浩浩天(활수원두호호천).⁴⁷⁾

(2). <양자를 구하러 파주로 떠나는 시아버지의 행차>1

이 몸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
시부모만 믿었으나 끝내 시어머님 여의었네.
시동생의 아들 바랐으나 기르지 못했으니
어느 때에나 양자를 데려올 수 있으리오

<尊舅以求螟事行次坡州>
此身無子又無夫(차신무자우무부), 只恃舅姑竟失姑(지시구고경실고).
望弟生兒兒未育(망제생아아미육), 何時螺羸負蒲蘆(하시과라부포로).

(3). <양자를 구하러 파주로 떠나는 시아버지의 행차>2

남들은 자식 있으되 나는 양자를 구하니
병든 시아버지 길 떠나매 그 얼마나 눈물 흘렸던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일 오직 예 있으매
총명한 아들 어느 곳에서 찾아오시려나

<尊舅以求螟事行次坡州>
他人有子我求螟(타인유자아구명), 病舅登程淚幾零(병구등정루기영).
日夜祈望惟在此(일야기망유재차), 鳳雛何處生寧馨(봉추하처생영형).

(4). <친정 부모 생각>

여자가 시집가면 양친에게서 멀어진다지만
밤마다 고향의 산천에서 노는 꿈을 꾼다지.
우러러 당상에는 홀로이신 시아버지 계신데

오로지 규중 박명 이 내 몸에 의지하시네.
고향이 비록 가까운 곳에 있다 하지만
감히 다녀오겠단 한 마디 아릴 수 있으리?
사사로운 정은 날아가는 까마귀만 못하나니
아침저녁 문안 인사 한 번이라도 다녀왔으면.

<思歸寧>

女子之行遠兩親(여자지행원양친), 釣淇陟岵夢遊頻(조기척호몽유빈).
仰惟堂上鰥居舅(앙유당상한거구), 專靠閨中薄命身(전고규중박명신).
雖是故鄉三舍近(수시고향삼사근), 敢因師氏一言陳(감인사씨일언진).
私情不及飛烏鳥(사정불급비오조), 晨去昏來定省均(신거흔래정성균).

(5). <세상살이의 어려움>

반평생 어두운 길 한 길로 달려왔나니
힘든 인생살이 모두 세차고 세찼도다.
이르는 곳마다 기울고 위태로운 촉산의 길이요
언제나 거꾸러지고 뒤집히는 무협의 파도였다지.
해를 당하고야 비로소 가슴 속의 가시를 아나니
그 누가 웃음 속의 칼 생각이나 하리오?
문 닫고 자취 감추어도 오히려 침노하는 고통
무릉도원 찾아가 복숭아 심는 법이나 배웠으면.

<行路難>

半世冥行走一遭(반세冥행주일조), 夏畦齊郭摠滔滔(하휴제곽총도도).
傾危到處蜀山路(경위도처촉산로), 翻覆當時巫峽濤(번복상시무협도).
見害方知胸裏棘(견해방지흉리극), 結歡誰測笑中刀(결환수축소중도).
杜門鏟跡猶侵苦(두문산적유침고), 思入仙源學種桃(사입선원학종도).

47) 주자(1130~1200)의 <관서유감(觀書有感)>:
半畝方塘一鑑開(반무방당일감개) 반 이랑 네모난 못이 거울처럼 펼쳐져
天光雲影共徘徊(천광운영공배회)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함께 떠 있네.
問渠那得清如許(문거나득청여허) 물노니, 어찌 이리도 맑단 말인가!
爲有源頭活水來(위유원두활수래) 근원에서 샘물이 솟구쳐 흘러오기 때문이지.

이상의 한시작품 이외에도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친필 한글가사작품 <남초가>, <권효가>, <규원가>, <노인탄가>와, 『쇼학집뇨』, 『널녀전』, 『오헝법』, 『오륜횡실』 · <推추數슈法 법> 등의 친필 사본이 더 발굴되었다. 이들 창작품과 필사본들은 정일현이 한시뿐만이 아니라 국문시가 창작에도 일가견이 있고, 학문의 관심 영역이 매우 다변화되어있음을 방증한다.

정일현은 유가의 성리철학으로 자신의 삶을 규범화시키는 한편, 한시와 가사 등의 문학 장르 창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격조를 높였다.

* 참고문헌

문희순 역주, 『역주 청취당집』, 서산문화원, 2009.

_____ 역주, 『역주 김호연재한시집-법천의 하루』, 대덕문화원, 2012.

_____ 역주, 『역주 정일현시집』, 예산문화원, 2015.

충청지역 기독교의 수용과 발전

송현강(前) 한남대 교수)

1. 충청도에 들어온 기독교

충청도 기독교 전래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19세기 충청도 지역 사회의 동향, 즉 신분 질서의 변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기독교를 수용했던 당시 충청도의 계급적 상황은 어떠했을까? 흔히들 양반의 고장 충청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들·곧 17세기 이후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했던 호서사림(湖西士林)은 18세기 이후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고, 19세기가 되면 지역 양반 사회 내부에 심각한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별도의 사회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 사실 그들은 새롭게 생겨난 집단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양반 지배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서얼과 향리 등 하위의 지배층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민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보통 향족(鄉族, 새양반/시양반)이라고 부른다.

지역사회의 중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향족들은, 18세기 이후 수령 권력 집중과 상품화 폐경제 발달 등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부와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기존의 상위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향전(鄉戰)-을 벌이게 된다. 급기야 19세기가 되면 충청도 많은 고을의 지배권, 즉 향권이 향족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임천군(부여)의 향리들이 향권을 농단한 것과 흥주(홍성)와 공주 그리고 전의에서 있었던 향리층 내부의 세력 교체 사례, 또 회덕(대전)의 <향원록>(향족 명부) 탈취 사건 등을 이를 잘 보여준다.

향족을 비롯한 이들 19세기 중간층들은 기독교의 지역사회 전래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충청도만을 놓고 본다면, 논산 강경의 덕유정계와 예산 고덕(당시에는 덕산) 류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말 강경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한 집단은 전통의 양반이 아니라 포구상업의 발전에 따라 경제력을 획득한 중간 계급의 지역유지들이었다. 강경이 18세기 이후 형성된 신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상업적 역량을 토대로 19세기부터 지방사회의 유력자로 등장한 강경의 유지들은

활 쏘는 곳이었던 덕유정의 회원 조합 덕유정계를 매개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강경의 덕유정계원은 50여 명으로, 전체 주민 가운데 상위 5%의 소수만 가입되어 있었다. 객주(客主, 대형도매상인) 등 돈 많은 부민층이었던 이들은 경제적인 부를 기반으로 다시 오위장(五衛將) 등의 관직을 사들여 신분 상승을 도모한 다음, 덕유정계를 중심으로 이전 시대의 양반처럼 지역사회를 주도해 나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양반에 비해 유교 성리학에 대한 충성도가 약했기 때문에 진취적인 성격이 강했고, 기독교 등 근대성의 새로운 사조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강경의 감리교회가 덕유정계 소속 지역유지들의 지원 가운데 시작된 것이 이를 응변한다.

또 하나의 사례는 덕산교회의 창설자인 류제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원래 내포(충남 서북부 10개 고을)의 미곡을 대량으로 취급하던 서울의 무곡상(貿穀商)이었다. 즉 전국의 곡가 차이를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던 한강의 쌀장사, 곧 경강상인이었던 것이다. 당시 충청도의 곡물은 그들의 중요한 거래 품목이었는데, 류제는 1892-1893년 내포에 와서 수십만 냥 어치의 쌀을 사들였다. 그를 양반이 아닌 부민층 상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류제는 1894년 동학운동 이후 면천군수가 되었다. 동학 당시 그 반대편에 서서 정부의 선유별관(宣諭別官, 국가에 변란이 있을 때 왕명을 받들어 백성들을 가르치고 타이르는 임시 관직)으로 활동한 보상으로 군수 자리를 받은 것이다. 19세기의 부민층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직을 획득하여 자신의 신분적 위상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정황이다. 1896년 군수직에서 물러난 그는 덕산에 머물며 기독교의 신앙공동체를 조직하였다. 아마 군수가 되기 전 한강의 쌀장사로 한참 활동하던 무렵 기독교를 소개받았으리라 추정된다. 류제의 이런 행위에서 당시 중간 계급인 부민층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유교 성리학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기에 근대 초기 새로운 종교나 사상의 흐름에 배타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기독교 전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맨 처음 한국에 들어 온 교파는 미국 북장로교(1884)와 북감리교(1885)였다. 이어서 호주장로교(1889), 미국 남장로교(1892), 침례교의 엘라딩기념선교회(1895), 미국 남감리교(1896), 성결교(1907)의 순으로 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의 선교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파 간에 선교 지역을

나누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테이션(mission station)을 설치하여 운영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 예산은 미국 북감리교의 담당 선교 구역으로서 그들의 공주스테이션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었다.

19세기 말 한국 선교를 시작한 구미의 선교사들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자 선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로 협정을 맺고 지역을 나누어 전도하였다. 그 결과 충청남도는 오늘의 서천군·금산군 전체와 부여군 절반(구 임천군과 홍산현) 그리고 논산시 연무읍 일부(구 익산군 황화면)는 남장로교가 맡고, 예산군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북감리교가 선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침례교와 성결교는 이러한 협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선교 패턴을 보면, 먼저 선교 대상 지역의 중심 도시에 그들만의 생활공간-스테이션-을 건설하고, 다시 그 안에 병원과 학교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스테이션은 선교사들의 주거와 전도, 의료, 교육의 기능이 하나의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는 복합선교지구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서천, 금산, 부여의 기독교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남장로교의 군산스테이션은 궁말 구암동산 3만평의 언덕 위에 조성되었는데, 그 안에는 모두 6채의 서양식 선교사 주택과 구암교회, 안락소학교, 영명학교, 영명여학교, 군산 예수병원 등이 포진해 있었다. 군산스테이션은 충남 남부와 충북 남부 지역 감리교 확산의 전진 기지였다.

북감리교 선교사들은 스테이션 중심 선교전략에 따라 공주, 서울, 인천, 원주, 해주, 평양, 영변 등 7개의 도시에 선교 거점을 두었다. 북감리교가 공주에 스테이션을 개설한 것은 그들이 향후 충남에서 선교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1903년 하리동 언덕 위에 조성되기 시작한 공주스테이션 구내에는 공주읍교회(공주제일감리교회)와 아울러 영명학교, 영명여학교, 공주중앙영아관, 공주의원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교사들로는 맥길(William B. McGill, 맥우원)과 샤프(Robert A. Sharp, 1904-1906)를 필두로 1906년과 1907년 각각 공주와 인연을 맺게 된 교육선교사 윌리엄스(Frank E. C. Williams, 우리암, 1906-1940)와 선교사 테일러(Corwin Taylor, 대리오, 1907-1922) 그리고 샤프의 미망인으로 남편 사망 이후 계속 공주에서 활동했던 앤리스

(Alice J. Hammond, 사애리시, 1908-1940)가 있다. 또 1919년부터 공주에서 사역하기 시작한 아멘트(Charles C. Amendt, 안명도, 1919-1940)는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물면서 충남의 감리교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료선교사 반 버스커크(James Dale Van Buskirk, 반복기, 1909-1913) 역시 공주의 의료사업을 제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평가된다.

충청도에 맨 처음 들어온 기독교 교파는 침례교와 감리교이다. 1896년 봄과 가을의 일이다. 먼저 침례교 선교사 에드워드 폴링(Edward C. Pauling)이 1896년 2월 지금의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에 임시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예배를 보았다. 원래 폴링은 1895년 서울에서 선교를 시작했으나 이미 다른 선교부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있음을 깨닫고 곧 지방으로 눈을 돌려 아직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충청도로 내려왔던 것이다.

이어서 바로 그해 가을 무렵 서울에서 300리 되는 덕산의 한내에서도 예수의 도리를 전하는 이가 나타났다. 면천군수를 지낸 류제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교회 책’을 나눠 주고, ‘교회 이치’를 설명하였다. 서울의 북감리교 선교부는 류제의 덕산 공동체가 있음을 알고 사역자들을 보내 전도하게 하였다. 그 결과 수십 명의 교인이 생겨났다. 또 거기에서 30리 떨어진 수촌에도 사헌부 감찰을 지낸 조원식 주도의 교당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 이 공동체는 덕산 류제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감리교선교부는 충청도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다. 즉 1892년 공주 선교를 언급하며 한국인 사역자(유치겸)를 배치한 적이 있고, 1894년에는 ‘수원·공주구역’을 설정하여 남쪽으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선교사 스웨어러(Wilbur S. Swearer, 서원보)는 1898년 그 구역의 책임자로 임명받아 충청도 선교를 책임지게 되었다. 1901년 그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충청남도에는 덕산과 해미 두 곳에 감리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즉 위의 덕산교회에 이어 거기에서 파생한 해미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스웨어러의 노력으로 감리교는 1902년 가을 공주에 좋은 위치의 선교 부지와 선교사 사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듬해 7월 이용주와 함께 도착한 맥길은 공주의 첫 상주 선교사였다. 곧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났고, 공주읍교회(공주제일감리교회)에 이어서 논산교회도 설립되었다. 또 1904년 2월에 있었던 감리교 회의에서는 로버트 샤프 선교사를 충청 구역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는 1903년 내한하여 서울 배재학당과 정동교회에서 일하였는데, 그사이에 여선교사 앤리스와 결혼하였다. 선교사 샤프의 출현으로 충청도의 선교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2. 내포의 감리교 확산

1901년 스웨어러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수집한 정보를 모아 이 지역의 선교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서 당시 해미에는 모두 11개 마을에 53명의 교인이 산재해 있었고, 또 덕산에도 1901년 현재 작은 공동체가 계속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우리는 여기서 1896년 가을 무렵 류제에 의해 형성된 이 지역 기독교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해미 쪽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해미가 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덕산과 해미는 군의 경계를 두고 바로 이웃해 있었다.

1903년 감리교선교부는 위의 덕산-해미 공동체를 기반으로 흥주구역(1904년에는 서산구역으로 개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1907년은 감리교의 충남 선교에서 하나의 전기를 이룬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골격이 갖추어진 공주스테이션의 선교 양상은 그 후 이 지역 감리교회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조짐은 먼저 한국인들에게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다시 강력한 부흥운동의 발생과 선교 조직의 확대 및 선교사들의 증원으로 강화되었다. 1906년 11월 다시 공주로 복귀한 스웨어러는 샤프의 사망 이후 선교사들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지향하는 모임은 더욱 늘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방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계속 생기고 있고, 여기 저기의 마을에서 자신들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기왕에 (자발적으로) 조성된 모임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과 그들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 실제 접촉하는 일”로 바뀌었다. 공주 남쪽에만도 이러한 모임들이 40여 개나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으며 교회와도 명확한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다. 스웨어러는 “그들 중 다수가

아직 선교사를 한번도 본적이 없음”에 감탄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모임들은 공주 동쪽에서 청주와 충북을 지나 경상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자신을 감리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돌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지난 6개월 동안의 8차례에 걸친 구역 순방의 목적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298개로 추산되는 모임들을 확인하고 그 조직을 스테이션의 영향권 안에 가담시키는 것이었다. 또 그는 같은 기간에 738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세례를 받기 위해 3-4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었다. 1907년 공주구역의 통계 가운데 가입희망자(seekers) 2,918명은 이런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환경에서 선교 조직의 확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1905년에 3개(공주-연기-홍주), 1906년에 4개(공주-놀미-연기-홍주)였던 충남의 감리교 순회구역(circuit)은 1907년에 목천(전기주), 연기(오해두), 공주읍(김광식), 공주(홍승하), 놀미(최상빈), 연산(문학산), 홍주(김상배) 등의 7개 구역으로 늘어났고, 다시 1908년에는 거기마다 오천, 강경포와 회덕이 추가되었다. 또 그 구역들 안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 다수의 강력한 감리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에서 ‘구역’을 조직하고 교역자를 파견한 것은 한 지역 안에 여러 개의 신앙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1909년의 통계를 보면 충남은 공주지방 산하 총 12개 구역에 1,104명의 감리교인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것은 1907년 3천여 명에 달하던 가입 희망자들의 다수가 이제 교회의 공식 조직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도와 목회의 현장에서 한국인 신자들과 직접 접촉했던 한국인 사역자들의 수와 그들에 대한 훈련의 정도는 그 공동체들의 양적 팽창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1909년 충남에는 아직 한국인 목사는 배치되지 않은 채 모두 13명의 전도사와 10명의 조사(助事)들만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기존의 교인들 외에도 3,215명에 달하는 가입희망자들을 관리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1907년 공주지방의 한 구역으로 편성된 홍주가 선교사들의 눈길을 다시 끌기 시작한 것은 1908년 초로 파악된다. 1907년 6월의 연회에서는 김상배를 그 구역의 담당자로 임명했지만 그의 실제 활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자금의 부족이 그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1908년 초 충남의 북부지역에 다시 사역자를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독지가의 지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일꾼은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았다. 흩어져 있던 소수의 신자들을 돌아보고,

해안선을 따라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영역을 개척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수년전의 해미·덕산 공동체가 무관심속에 거의 와해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다. 조사 노병목의 활동은 눈부신 것이었다. 1908년 6월 선교사 테일러는 노병목이 새로이 진출한 지역을 방문하여 9명의 세례지원자와 3개의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던 완공 직전의 예배당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09년 4월말 그가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29명의 세례지원자와 108명의 새로운 신자 그리고 3개의 예배당과 건축중인 한 개의 예배당이 거기 있었다. 테일러는 매달 7엔씩을 받으면서 한해 6,000-7,000리의 거리를 누비며 충남 서북 지역의 공동체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던, 이 새로운 일꾼 노병목의 활동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3. 충남의 침례교와 성결교

(1) 충남의 침례교

침례교 선교사 폴링은 1895년 가을 강경 방문 중 인천 출신으로 그곳과 서울을 오가며 광목 장사를 하던 지병석을 만나 자신의 조사로 삼은 후, 그를 앞세워 옥녀봉 원쪽의 땅을 매입하여 그 안에 가옥을 마련하였다. 침례교의 충청도 선교 기지가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듬해 2월 강경을 재방문한 폴링은 옥녀봉 주택에서 지병석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곳은 지금 “침례교 최초 예배지”로 기념되고 있다.

이어서 폴링은 2년 뒤인 1898년 옥녀봉 일대 4천여 평의 부지를 확장 매입한 후 자신의 집을 짓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폴링은 10명 내외의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 강경에 개신교의 신자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이어서 미국으로 돌아간 폴링을 대신하여 1900년 강경에 온 선교사 스테드먼(Frederick W. Steadman)의 노력으로 12명의 교인이 새로이 가담하였다. 1901년 여름 강경침례교회 교인들은 그 어간에 새로 생겨난 임천의 칠산침례교회 교인들과 번갈아 가며 일요일에 예배 모임을 가졌는데 그 수는 40-50명이었다.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1901년 스테드먼에게 충청도의 침례교인들을 인수한 선교사 펜윅(Malcom C. Fenwick, 펜위익)은 신명균을 파견하여 공주와 강경에서 활동하게

하였다. 그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2년 동안 12개의 교회를 세웠다. 스테드먼이 1905년 강경을 일시 방문했을 때 충청도에는 모두 300명 정도의 침례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에 고무된 펜윅은 이듬해인 1906년 10월 6일 강경침례교회에서 총회(1차 대회회)를 열고 한국 침례교의 전신인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강경교회는 한국 침례교회의 발상지이다.

이 회의에서 장석천이 교사로 임명받아 강경침례교회를 포함한 강경구역을 맡게 되었다. 그는 1909년 9월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11년까지 강경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하였다. 1911년부터 1917년까지 대한기독교회의 감목(총회장)이었던 이종덕 목사는 1년에 몇 차례 강경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보며 숙박하였다. 옥녀봉 강경교회 구내에는 예배당과 사택을 포함 모두 5채의 건물이 있었다. 1920년대 강경교회의 목회자로는 김용제 목사가 있었고, 1930-1940년대에는 김용해 목사가 교회를 돌보았다. 1936년 강경교회의 교인 수는 46명 이었다. 그리고 선교 지역도 확대되어 1910년에는 공주군 장안면 태성리와 예산 광시면 광시리, 1912년경에 청양 원동 그리고 1930년 예산 발연리, 1931년에는 연기군 남면 송담리에 각각 교회가 세워졌다.

(2) 충남의 성결교

충남 성결교회의 시작은 부여 규암의 김성기와 경성성서학원 재학생 박제원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고종의 3남 의친왕의 처남이면서 전직관료였던 김성기는 먼저 1910년 서울에서 장로교 묵동교회에 가입했다. 박제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1905년 서울의 연동교회에 입교하여 1906년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다. 그랬던 그가 성결교의 교역자 양성 기관인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1908년 성결교의 구리개교회에서 열렸던 부흥회 때문이다. 그 부흥회는 “온 경성의 교회가 다 움직이게 되었고, 모든 교회 교역자와 선교사들까지 참석”할 정도였는데, 그 부흥회의 참석을 기회로 박제원은 성결교로 옮겨 갔다.

그런데 김성기가 다닌 묵동교회는, 1910년 바로 이 연동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것이다. 시간이 좀 흐른 1912년 봄, 김성기는 부여 규암의 석촌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곧 그곳에 교회가 없음을 한탄하고 개인 전도에 힘써 몇 사람의 구도자를 모아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교역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처음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경성성서학원의 재학생 신분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전도차 부여 규암의 석촌으로 내려간 박제원이었다.

그는 1912년 7월 그곳에서 몇 차례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김성기는 박제원을 통해 성결교 본부에 공식적으로 목회자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 10월 10일 강경을 경유해 규암에 도착한 성결교 선교사 토마스(John Thomas)와 이장하의 방문 목적은 김성기의 공동체를 통해 정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의 소식을 듣고 김성기의 집에는 멀리 20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 그날 하루 동안에만 세 번의 예배를 드려야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리더 김성기에게 청이 있었던 것이다. 토마스는 전도관 설립을 유보하고 일단 서울로 귀환하면서 김성기를 압박했다. 그가 청을 내보내야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 이듬해 고민하는 김성기의 모습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결국 김성기는 청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성결교와의 관계를 끊고 감리교와 접촉한 후에, 1914년 봄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데리고 규암에 새로이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1913년 7월 다시 규암에 도착하여 약 한 달간 체류한 박제원은 결국 그해 10월 12일 성결교의 한국 책임자였던 킬보른(Ernest A. Kilbourne) 그리고 이장하, 김상준 등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규암성결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김상준과 박제원은 규암성결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들이 되었다. 당시 규암교회에는 30여 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의 활동은 벌써 3마일 떨어진 은산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또 그들에게 교리를 묻기 위해 멀리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왔다가 며칠씩 묵어가는 사람도 생겨났다. 1914년 3월과 7월에는 서울과 김천으로 떠난 김상준과 박제원을 이어서 이명직과 김석준이 새로 부임하였다. 이명직은 1914년 5월에 벌써 규암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김석준은 새로이 설치될 은산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본부에서 파견한 교역자였다.

1914년 5월 29일, 선교사 토마스는 이장하와 함께 다시 부여를 방문하여 은산교회의 개설을 준비하였다. 당시 성결교는 선교의 역량을 부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5년 2월에는 경성성서학원의 생도들도 은산 특별집회에 투입되었다. 1915년 1월 은산의 신자 18명 가운데 7명은 1914년 12월에 더해진 교인들이었다. 그중 4명은 오랫동안 가입을 희망해 왔던 사람들 이었다. 당시 은산의 마을들에는 제당이 있어서 소가 제물로 드려지고 있었다.

토마스는 다시 홍산으로 눈을 돌렸다. 1915년 3월 규암을 방문한 토마스는 부여 지역의 성장을

목도하고 또 그에 따른 교역자의 증원 요청을 받게 되는데, 이때 토마스는 홍산에 새로운 교회 설립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곧 홍산교회 신설을 위해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350불의 비용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4월 홍산의 사역자로 내정된 전성운이 부여에 도착하였다. 그는 이미 2월부터 은산의 보조사역자로 일하면서 교인들에게 호응을 얻은 터였다. 그는 7월부터 홍산 장날 노방전도를 시작한 데 이어 8월부터는 홍산에 가옥 한 채를 빌려 매 주일 집회를 열게 되었다. 1916년에는 홍산에서 5리 떨어진 바야웨(금천리)에도 성결교회가 조직되었다. 이어서 1918년에는 강경과 밀양, 김해에서도 성서학원을 졸업한 목회자들에 의해 성결교회가 문을 열었다.

4. 충북 기독교 전래

(1) 충북 기독교의 시작

초기 충북 선교는 미국 북감리교, 북장로교, 남감리교 등 모두 세 개 교단 선교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먼저 북감리교선교부가 한강 이남 선교를 계획한 것은 1892년이었다. 서울의 감리교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이제 그 선교사들은 수원과 공주 등 남부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감리교 전도인들의 발걸음이 경기도를 지나 충북 땅에 다달은 때는 대개 1901년 무렵이었다. 이천 덕들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박해숙은 그 어간에 목천을 거쳐 진천과 충주, 청주 등을 돌며 전도했다.

그 후 1903년 공주에 스테이션이 설치되면서 북감리교의 충청도 선교가 본격화되었다. 스웨어러와 샤프 선교사는 그때부터 1909년까지 한국인 전도인들과 함께 청주, 보은, 영동, 진천, 충주 등을 순행하며 이곳에 감리교의 공동체들을 조직하였다.

북장로교선교부의 충북 선교는 그보다 먼저 충청도 선교에 나섰던 침례교 계통 엘라딩기념선교회가 1901년 인력과 재정난으로 일시 철수하자 그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미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북장로교 선교사 밀러(Frederick S. Miller, 민로아)는 그때부터 자신의 선교 영역을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도까지 확장시켰다. 1905년 청주로 이주한 밀러는 그 후 보은, 괴산, 영동, 조치원, 옥산 등을 두루 순회하며 신앙공동체의 조직에 나섰다. 장로교 전도인들의 활동은 멀리 충주까지 이어졌다.

충북 제천 지역은 원래 남감리교 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남감리교도 초기 충북 선교의 일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07년 강원도에 대한 남감리교와 북장로교의 선교 지역분할협상에서 제천은 북장로교의 선교 구역으로 조정되었고, 그 2년 후인 1909년 다시 북감리교의 영역으로 재구획된 사연을 갖고 있다.

20세기 초 충북 지역에 대한 북감리교와 북장로교의 공격적인 선교는 당연히 선교 지역 중복이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한 도시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나란히 세워졌다. 이른바 선교 혼재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그러자 북감리교와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08년부터 충북에 대한 선교지역 분할협상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서로의 협상안을 가지고 제안과 역제안으로 맞서며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양 교단의 본국 선교 스탭들은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미국의 뉴욕에서도 협상을 진행하였다. 결국 1909년 9월 두 선교부는 충청북도를 반으로 나누어 진천, 음성, 충주, 제천, 청풍, 영춘, 단양, 괴산 등 북부지역은 북감리교가 맡고, 연풍, 청주, 문의, 영동, 회인, 청산, 보은, 청산, 옥천, 황간 등 충북 남부 지역은 북장로교가 담당하는 것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때 많은 수의 교회들이 각기 자신의 교파적 정체성을 감리교에서 장로교로(충북 남부의 경우), 또는 장로교에서 감리교로(충북 북부의 경우)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1909년의 협정으로 형성된 충북의 기독교 지형은 1936년 선교지 경계가 철폐될 때 까지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2) 청주 기독교 전래

청주에는 20세기 초 복음이 전래되었다. 먼저 경기도 이천에서 예수를 믿은 감리교 전도인 박해숙의 순회 전도가 있었고, 북감리교 선교사 스웨어러 역시 청주를 방문하여 공주스테이션과 연결된 이곳의 감리교 공동체와 접촉한 바 있다. 장로교 역시 비슷한 시기에 청주에 들어왔다. 1901년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대교회(청주시 흥덕구 신대동)는 당시 청원군 강서면 신대리에 살던 오천보, 문성심, 오삼근 등이 1902년 1월 개최된 경기도 죽산군 둔병리 사경회에 참석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 후 본격적인 청주 선교는 북장로교 선교사 밀러가 주도하였다. 1901년 9월 북장로교선교부로부터 충청도 선교책임자로 임명받은 밀러는 한국인 전도인 김홍경과 함께 청주를 돌며 전도하였다. 곧 청주의 지역유지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김원배, 방홍근, 이영준, 김재호, 이범준 등이었다. 밀러는 이들을 중심으로 1904년 남문밖에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여 청주읍교회(현 청주제일교회)를 시작하였다. 또한 교회와 함께 방홍근의 집에서 청남학교도 시작하였다. 초기 청주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행적은 19세기말 20세기초 한강 이남 기독교의 초기 전파 과정에서 흔히 관찰되는, 지역사회 내부에서 기독교 수용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즉 구체제에 대한 미련은 없으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교양을 갖추어 지역민들의 신망을 받는 한편, 유교적 공동체의 기능이 파괴된 향촌사회의 정신적·도덕적 공백 상태를 기독교의 교회와 새로운 학교 환경을 통해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리학주의 대신에 이른바 “문명개화론”을 받아들여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교회와 학교의 설립을 병행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의 유력한 후원자들이었다.

1901년 밀러를 충청도에 파송한 북장로교선교부는, 다시 1903년 청주에 스테이션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청주를 중심으로 충북 선교에 주력하겠다는 북장로교의 의지를 드러낸 것 이기도 하다. 그 후 1904년 가을 탑동 청주스테이션 부지 매입이 시작되었고 이듬해에는 밀러가 가족들과 함께 청주로 이주하였다. 밀러는 스테이션 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후임 선교사들과 힘을 합하여 전도와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 중심의 유기적인 선교 활동을 벌여 나갔다. 밀러 이후 청주에 부임한 선교사들로는 우선 1907년 가을에 온 카긴(Edwin H. Kagine, 계군)이 있고 그 다음 1908년 임지에 도착한 의사 퍼비안스(Walter C. Purviance, 부반서) 부부와 쿡(Welling T. Cook, 국유치)부부 그리고 여선교사 도리스(Anna S. Doriss, 도신녀)가 있다.

이듬해인 1909년에는 여선교사 데이비스(Grace L. Davis)와 로간(J. V. Logan)부인도 청주

선교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청주 스테이션의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이후 청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교사로는 솔타우(Theodore S. Soltau, 소열도), 퍼디(Jason G. Purdy, 부례선), 로위(Dewitt S. Lowe, 노두의) 등이 있다.

5. 기독교 수용-갈등과 융합

한국교회 신자들이 “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또는 “나는 근본주의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나 설교를 듣는 신자들 차원에서 별도의 해석학적 과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기복신앙을 장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자들은 기복적 경향을 지닌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식대로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문화적 경험은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비단 기독교의 수용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받는 그 순간 그 내용을 재해석하여 받아들였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 한국의 전통적 유산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살 수 없다. 또한 한국인이라는 종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을 공유할 수밖에 없음도 염연한 사실이다.

근대 초기의 한국인들은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수용하기 이전에 이미 성리학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중세적 사유 세계를 그들 사고의 전제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문명개화”라고 하는 시대의 요청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선교사들이 제시하는 복음의 논리와 용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한국인들의 독자적인 세계관이 작동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된 19세기 미국 기독교의 성격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면 서도 그 실질적인 양상은 이미 그 출발 초기부터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백지 상태”(tabula rasa)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전통 종교들의 영향을 깊이 받는 가운데 기독교세계관을 수용하고 표현해 왔다. 즉 “기독교를 터득하는 한국인만의 독자적인 방식이 있다”는 말이다.

충청의 기독교인들의 입교 과정에서 수반되는 중요한 현상은 그들이 개종 이전에 신봉하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를 외형적으로는 철저하게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마을 공동체의 종교적 관습이 유별났던 부여 은산의 전도관은 연 3-4회에 달하는 공동체적인 별신제의 행사로 매우 심각한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종교적인 ‘박해’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단호하게 은산에서 벌어지는 무속적인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사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그 제전의 중요한 멤버들이었을 터였다.

1919년 구정(the Chinese New Year)때에는 마을에서 우상에게 바칠 제물에 소요되는 경비로 70엔을 모으기로 결정하고 교회의 교인들도 거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왔지만, 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므로 출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강제로 돈을 거두려고 곧 군중을 모아 압력을 가했지만 그들은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또 부친상을 당한 홍산전도관의 한 남자 신도는 망부(亡父)의 혼을 위해 장례기간 동안 하루 두 번 아침저녁으로 제(祭)를 올려야 하고(朝夕奠), 또 향후 2년 간 매달 1일과 15일에도 그래야 하는(朔望奠) 유교적인 상례(喪禮)의 규칙을 거부했다. 그 노모의 분노는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신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또 어떤 중년의 여신도는 구정 때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들과 말다툼을 벌였으나, 그 여신도는 하나님의 법과 유교의 제사는 배치된다고 말하면서 아들을 침묵시켰다. 1924년 홍산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남편의 신주를 계속 모셔두고 있는 여신도를, 목회자들이 설득하여 그 신주를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일도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 여신도를 끌고 가, 관에 고발했지만 그녀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 외에도 강경교회와 부여 내산의 묘원리기도처 그리고 장로교의 화촌교회의 신자들은 우상을 불지르고, 제청(祭廳)을 파괴하고, 제실(祭室)을 불살라 충실히 자신들의 새로운 종교 신념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한국의 전통 신앙에 대한 이러한 외면적인 결벽성과는 달리, 복음주의 기독교를 수용한 그들의 내면 세계는 이제까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견지하고 있던 종교적 전제들이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 즉 1916년 60세난 할아버지가 성결교의 홍산전도관에

나타나 폐질에 걸린 며느리의 치료를 요청해 왔을 때 그 사역자들은, 그 할아버지에게 하늘에 기도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그는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올렸고 결국 그의 며느리는 완쾌되었다.

또 1918년 부여 규암전도관의 할머니 신자는 개종 이전 귀신을 신봉하고 가족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 굿을 했던 전형적인 무속 신앙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 그 할머니는 이번에는 본인이 죽도록 아플 때 예수에게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 치료되었다고 자랑스레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할아버지의 기도와 할머니의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질병의 치료라고 하는 종교적인 영향력에 맞추어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들이 기독교의 회당을 방문한 계기는 그들의 종교적 필요 때문이었다. 그들은 기독교의 종교적 효과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1923년 은산에서 4마일 떨어진 곳에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발병 초기에 박수(a sorcerer)를 불렀지만 아들의 상태는 차도가 없었다. 그때 만난 은산의 한 교인은 그녀에게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종을 권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박수와 예수가 어떤 동일한 선상의 종교 대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보게 된다. 은산의 신자는 박수보다 “더욱 강력한 영적 효력을 갖고 있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화초복(除禍招福)이라는 샤머니즘 종교의 본래 목적은 바뀌지 않은 채 기독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욱 유용하다는 현실적 효과만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태도가 특정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19년 감리교 논산 구역 성리교회의 배세라 부인은 “십유여년전에 계룡산 신원사로 불공하러 가는 길에 전도인 신현구씨의 전도를 듣고 그때부터 깨닫고 주를 믿고 경천교회에 가서 예배보고 왔는데 그 후로부터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오늘날까지 풍우한서를 불고하고 열심기도한 결과....” 그 교회가 신령하게 되었다고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개종 이전 그의 ‘불공’과 이후의 ‘산 기도’는 어떤 동일한 종교적 코드라는 느낌을 자울 수가 없다. 기원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그의 종교적 태도 즉 간절한 기원이라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의 축적을 통해 소원을 성취하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다음 ‘용화산전승기’는 1937년 6월 강경성결교회와 관련되어 일어났던 사건이다.

水將軍귀신에 들린 여자 (중략) 이 사귀는 예수믿기를 권장하는 별종의 사귀이다. 뉴 8장 26절 이하를 펼쳐놓고 주께서 사귀를 명하사 豚群에 드러보낸 말씀으로 권면한 즉 여인은 감사히 받으며 말하기를 구원을 얻은 후에는 전도로 여생을 맞이하겠다고 은혜스러운 말을 한다. 이 여인은 능변가요 武氣가 있어 보이며 장차 좋은 봉사자가 되었으면 싶었다. 여인은 수일 후에 와서 자가의 모든 불상을 타파하고 예배보아 달라고 간청함으로 반가이 허락하였드니 여인은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다시 와서 기도하고 떠났다 (중략)

예배가 끝나자 여인은 정신이 상쾌하고 히열이 충만하여 밀하기를 전에 자기의 접한 신이 이르기를 이곳에다 당을 지을것이라 하더니 마귀도 이곳이 예배당 될 줄을 안 것이라 하며 선생들이 다녀 가신 표적을 붙이고 가라고 한다. 마침 벽상에는 유리간판에다 용화산 석굴암 至誠發願 所願成就라고 써있다. 이 간판을 떼어서 그 글자를 지우고 강경성결교회 용화산 기도소라 써서 간판을 걸고 斜陽山路에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니 (후략)

위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축귀(逐鬼)보다는, 이제 막 무당의 생활을 청산하게 된 그 여성을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태도에 있다. 정황으로 볼 때 그 여성은 아직 기독교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식과 교리를 전달받지 못했을 터인데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풍부한 영성을 무기로 ‘여생을 전도로 맞이하겠으며’, ‘마귀도 예언한 예배당의 주인’으로 새롭게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 여자는 기독교의 초신자(初信者)의 반열이 아니라 강경성결교회 용화산기도소의 여사제로 변신한 것이다. 전형적인 한국의 도교적 샤머니즘과 부흥운동의 근대복음주의가 한 개인의 정신세계에서 만나 이뤄졌던 그 융합의 과정을 모두 설명해 내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여성의 개종 이전에 겪었던 어떤 영적 체험은 그 여자가 계속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한 그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기저(basis)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위와 같은 극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도교적 샤머니즘의 신비주의적 영성은 비단 어떤 개인의 특수한 성향이 아니라 20세기초 보편의 한국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종교적 세계관의 일부였다고 생각한다. 이 여자의 샤머니즘적 영성은 강경성결교회의 교인들과 공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여자의 강신(降神)체험과 강경교인들의 성령강림 또는 성령충만은 매우 유사한 종교체험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부여군 문신리교회의 신자 류병호씨는 “예수를 믿고 효성이 있더니 수 삭 전에 그 부친의 병환이 위독할 때에 단지(斷指)”를 해서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손가락을 끊어 자신의 효성을 표시하는 행위는 사실 유교적 전통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의 행위는 기독교적이라기 보다는 매우 성리학적인 것이다.

또 은산의 한 신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전을 접할 때 먼저 세수하고 의관을 정비한 후 두루 마기를 입어야 하는 한국의 전통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는 후에 결국 상투를 잘랐지만, 처음에는 그 관습을 고수하느라 애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자신의 종교적 성향과 경전을 대하는 한국적 태도가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한 보람있는 삶

예산문화원장 김 종 옥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기간을 살다가 죽게된다. 그 삶의 기간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100세 이상까지도 살고 어떤 사람은 일찍 요절하기도 한다. 그 기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긴 세월로 볼 수도 있고 우주만물의 긴 역사에 비하면 찰나의 세월일수도 있다. 그 기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도 있고, 또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보람있게 산 사람도 있으며, 평범함 속에 행복하게 살기도 하는가 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산 사람도 있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에 따라 흔히 ‘성공한 삶이다’,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성공한 삶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것이다. 본인의 의지와 노력의 여부, 뒷배경, 운수, 주변 환경, 부모님의 영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 혹자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혹자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개척하여 자수성가를 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잘 이겨내고 성공한 삶이 더욱 빛나고 보람된 삶으로 비쳐진다.

여기 예산 출신으로 이와 같이 열심히 살아 국가의 발전에 또 지역사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두분의 삶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로는 젊어서의 불운을 이겨내고 숙명여자대학교 초대총장으로 국가와 사회에 크게 봉사하며 여성교육의 큰 별로 살아가신 임숙재 총장의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임숙재 총장은 1891년 7월 22일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에서 애국지사인 부친 임명호씨와 모친 김명은 여사 사이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17세에 아산군 신창면 득산리 239번지의 명문대가인 윤참판댁으로 출가했으나 남편 윤돈이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별세함으로서 결혼한지 1년도 못되어서 청상과부가 되었다. 임총장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에게게 꽃이 피다 말았네’, ‘아직도 어린나이인데 안됐다’며 동정하는 말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도 기구한 자신의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 지인의 소개로 어느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인정도 받았는데 어느 날 주인집 어르신께 두 가지 요청을 했다.

하나는 ‘야간학교라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일날 이면 꼭 교회에 나갈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주인은 이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일본으로 유학을 갈수 있게 되어 동경부립여자사범학교와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귀국하였으며, 고향인 삽교읍 방아리의 친가에도 자주 들러 삽교면, 오가면 등을 순회하면서 여성들의 계몽활동도 하였다.

1939년 4월 숙명여전이 창립되자 임여사는 조교수로 취임했고 해방이 된 후 그 당시 4년제 대학의 설립요건인 대지 20만평을 확보하고 대학의 기반을 공고히 해 숙명여전을 4년제 숙명여자대학교로 승격시키고 초대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녀는 숙대 재임 19년간 사재를 털고 심혈을 기울여 숙명여대를 크게 성장 발전시키면서 한국의 여성교육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임총장은 일찍 결혼하여 실패하는 불운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한 우리나라 여성계의 큰 별이 되었다.

그 분은 불굴의 의지로 운명을 바꾸어 놓은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제자들에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십시오’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인간은 ‘고난을 잘 이겨내야 무슨 일에서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고난이나 고통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재난 같은 것들이 사람의 정신을 한곳으로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포기하지 않고 정도로 정진하면 더욱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삽교읍 방아리 26-5에 있는 임숙재 총장의 친가였던 가옥에서 살고 있는 안병준씨(83세)와 그 가옥에 관한 이야기다.

임총장의 친가는 임총장의 부친 임명호 씨가 1937년에 지은 집이다. 당시는 일제 치하에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임명호 씨는 집을 태극형으로 설계하여 지었고 처마등에 태극문양 24개를 새겨 넣은 것으로 보아 임명호씨의 나라사랑 정신이 남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안병준 선생 역시 평생 부지런히 그리고 슬기롭게 농사를 지은 결과 넓은 농지를 소유하면서 모범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남달라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다. 그분이 농업·농촌을 위하여 활동한 내용을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76년 벼수확 후 가을 배추를 멀칭재배하여 품평회에서 1등을 차지하였고, 하우스 농사로 답 4모작을 성공하였으며, 1977년 충남도지정 선도마을 선정으로 논보리 40,000평을 파종하였고, 1982년 도지사께 지하수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관정 25개공을 개발함으로써 천수답 70,000평의 가뭄을 해결하였다. 또한 임차농 4만평으로 통일벼 2,000가마를 정부 수매 하여 기업농을 처음 실시함으로써 전업농 육성 발전의 모범이 되었다. 2016년에는 벼 보급종 종자 생산구조 개선안 건의서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여 쌀값하락으로 인한 시장시세와 벼 보급종 보급단가의 격차를 좁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이를 인정받아 1990년 새마을훈장을 수훈하였고, 2017년 예산군민의상(농업부문)을 수상하였다. 또한 오래전부터 매년 추사 유묵달력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어렵게 농사지어 수확한 쌀을 이웃과 저소득층에게 나누어주는 선행도 하고 있다.

안병준씨가 살고있는 가옥은 임총장 입장에서 보면 친가이었고 안병준씨 입장에서 보면 현재 사는 집인데 두분 모두 열심히 노력한 삶을 살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집은 계속해서 보람된 삶을 살아온 분들을 배출하는 특별한 집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현재의 집주인인 안병준씨는 이 집을 보존하고 문화재로 등록하여 임숙재 총장의 훌륭한 삶을 길이 길이 널리 알리고 기리며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상징건물로 남기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 특유의 특기, 자질,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태어나서 일생동안에 닥치게 되는 환경 또한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이라서 또한 나는 부모가 못나서 성공을 못한다고 탓만 하고 노력은 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므로서 좋은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고 또 후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훌륭해 보인다.

참고자료

- 1.전용국외6인, 예산의 인물, 예산문화원, 2000, PP.154~155.
- 2.김한음,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 이야기, 블로그, 2015.7.14.



나의 문화원이야기

예산문화원 주임 장혜민

내 첫 직장 예산문화원에 대한 글을 쓴다면 나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나의 첫 직장이자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문화원에 애정을 담고자, 내가 입사 후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보에 글을 실어보기로 했다.

나의 문화원 입사일은 2017년 10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나는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니 정말 어른이 됐다고 착각하며 뭐든 잘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것 같다. 입사하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람, 그중에서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었다.

우리 문화원은 작은 영화관인 예산시네마를 운영하고 있어서 더욱이 민원인들로 인하여 힘든 일이 잦았는데, 그중 하나를 꼽자면 작은 영화관이다 보니 대형영화관보다는 다소 미진한 시스템이나 시설에 대한 민원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점 때문에 대형영화관보다는 비교적 싼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골에 위치하다 보니 자기보다 어린 사람 더욱이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다수의 사람으로 인해 나의 직장과 일에 치여 지쳐갈 때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준 건 친구들과의 여행도 혼자만의 시간도 아닌 우리 예산시네마에 방문하신 중년 부부였다.

그 부부는 예산시네마 만의 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다. 여기서 느낀 점은 같은 부분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있기 마련이니 그 불만들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을 겪으면서 나는, 민원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고 상대하기 위해 평소 관련분야 혹은 관심 분야가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 찾는 일이 잦았는데, 이를 알아감으로써 나의 가치를, 나의 지식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에세이를 즐겨 읽는 나에게 와닿았던 문구가 있었다. 바로 일과 나를 분리하는 것,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일이 아니니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로 나 자신을 자책하고 버려가지 말 것, 일이 내가 되고 내가 일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임을 기억할 것, 내가 속한 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원들 또 전국 어느 기관에서든 민원인은 존재하기 때문에 직장스트레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러한 현실 속 수많은 스트레스를 버티고 있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프로젝트 : 옛스러움을 밟다 땅.짚.다

예산문화원 사원 홍성희

지역문화인력으로써 주어진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게 좋을까 고민으로 시작했다. 지역문화인력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인 나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우리 아이라면 무엇을 해주고 싶을까?” 등 고민 끝에 전통문화에 접하게 됐다. 전통문화, 그 중 짚공예가 우리지역에 현존한다. ‘짚’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 나는 ‘짚신’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짚신’관련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했다.

우리지역의 현존하는 전통문화인 짚공예와 짚신 전통문화체험프로젝트의 공통점. ‘짚’!!!! Destiny..... 이런 걸 운명이라 하나보다. 사업명도 생각보다 쉽게 정할 수 있었다. 짚신을 신고 땅을 걷는다 또는 옛것(짚신)으로 땅을 짚는다는 뜻으로 「옛스럼움을 밟다 땅.짚.다」 라 정했다. 사업명도 의미가 담기면서 느낌있게 잘 지어졌다고 나 스스로 칭찬도 해가며 나의 프로젝트 첫 기획은 이렇게 시작됐다.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 우리는 코시국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마스크가 없으면 안되는 일상들, 아이들의 수업조차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일상들 속에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없는 나로써는 막막함이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사전 예약접수를 받아 소규모로 진행 했다.

예산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 강좌 운영, 휘호대회 등 매년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평균 연령대가 높다보니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려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했다. 예산문화원 홈페이지 이외에 어떤 홍보 방법이 있을까? 신문 광고도 있을 것이고, 현수막 광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사업비가 있고 소규모의 행사라 계획 대비 홍보비에

많은 비용을 계획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대안은 하나였다. 우리지역 내 활발히 운영되는 온라인 카페를 활용하자!! 나조차도 그 카페에서 얻는 정보가 많다. 나도 이곳에 정보를 알리며 홍보를 한다며 사전 예약쯤이야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내 예상은 적중했다. 카페 내 지역 정보를 알리는 게시판에 글을 업로드하여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았고 글업로드 1~2일만에 선착순 마감이라는 결과도 만족스러웠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예산문화원을 알리기에도 괜찮은 홍보였다고 생각한다.

카페 내에 활동하는 연령대가 20~50대까지 다양하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초등학생 아이들이어서 우리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참여연령대가 가장 낮은 사업이었다. 프로젝트 자체가 초등학생 아이들에 맞춰 짚신키트도 제작하여 진행했지만, 처음 접해보는 전통 자연소재를 능숙히 다룰 수는 없었기에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체험을 완료했다.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초등학생아이를 모집했지만 온 가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에 임해주었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가족프로그램으로 진행 및 마무리가 되었다. 우리지역에 문화원이 존재와 활동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친근한 매체로 다가가고 정보를 알리는 작은 힘이 된 것 같아 내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시간이고 프로젝트였다.

▶ 2021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



▶ 2021 예산시네마



매점 메뉴고안 논의

새로 바꾼 커피머신



삼국축제 때 시네마

안전관리점검 진행

영화선정회의



시네마 운영관련 회의

예산시네마의 크리스마스

▶ 2021년도 사업회계감사



▶ 대백제부흥군 위령제



▶ 동제



고덕면 호음리

광시면 대리

광시면 운산리



대술면 마전1리

대술면 마전2리

대흥면 갈신리



대흥면 교촌리

대흥면 동서리

대흥면 상중리



대흥면 탄방리

덕산면 광천1리

덕산면 상가리



봉산면 마교리

봉산면 봉림리

삽교읍 신리



신암면 계촌리

신암면 신종2리

신암면 예림리



신암면 조곡리

신양면 가지리

신양면 녹문리



신양면 차동리

예산읍 간양리

오가면 분천4리

▶ 문화학교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출전



우쿠렐레반 출전사진



한국무용반 출전사진

▶ 문화학교 전시회



▶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 자암김구서예대전



심사 사진



심사위원회 회의



심사위원회 단체사진



시상식



자암김구서예대전 장원



수상자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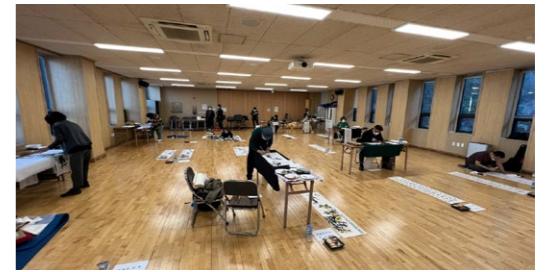


전시회 테이프컷팅식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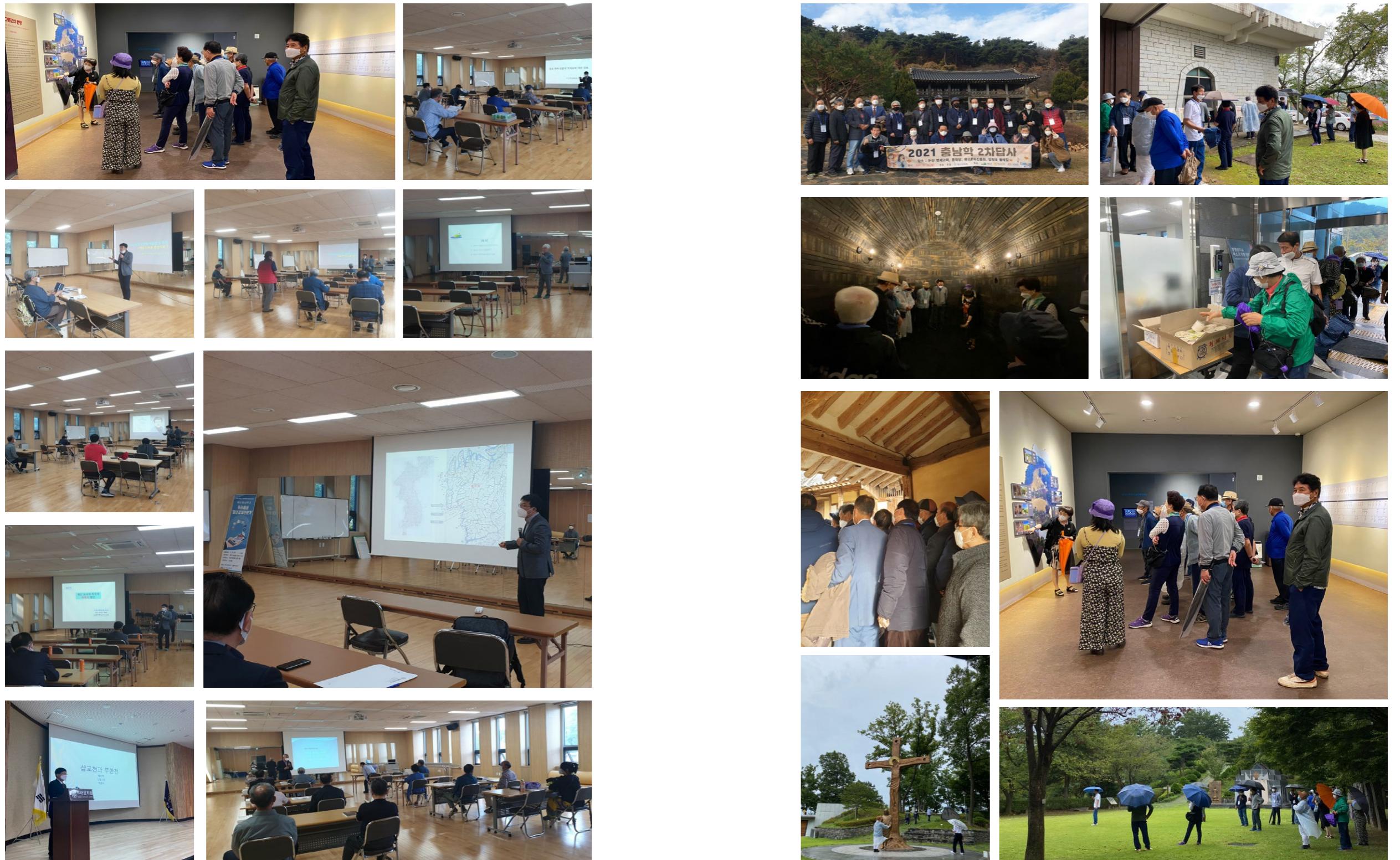
▶ 추사휘호대회





▶ 충남학 및 예산학





▶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 회의사진



(1.28) 마을동제 설명회



(2.8) 문화학교 강사 선정 심사



2020년 회계감사 1차(2.9)



2020년 회계감사 2차(2.17)



2021 1차 이사회



문화학교 강사 간담회



편찬위원회



▶ 직원수상



지역축제발전유공자표창(도지사상)
총감독_하종민



충남문화발전유공(충남문화원연합회장상)
주임_장화수



문화예술분야 발전 유공자 표창(예산군수상)_사원_홍성희 / 주임_이다연



(11.17)충청남도 문화체육 부지사 간담회



예산문화원은 지역주민 및 출향인들과 함께합니다.

예산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신년교례회 및 전시회, 공연들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예산문화원은 이 숲에 물과 거름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예산군민과 출향인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문화원은 지역주민 및 출향인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문화발전기금 납부자

백정임, 양봉임, 김동철, 추사기념사업회, 대산산업(주)

보내주신 회비 및 기부금은 조세제한특례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되며, 예산의 문화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입니다.

보내주실 곳 : 국민은행 463901-04-161758(예금주 예산문화원)

예산문화원 역대 문화원장 (1955년 ~ 현재)

구 분	성 명	기 간
1대	장 영 복 원장	1955. 10. 15 ~ 1957. 12. 31
2대	김 경 환 원장	1958. 01. 01 ~ 1961. 12. 31
3대	박 병 선 원장	1962. 01. 01 ~ 1963. 12. 31
4대	장 영 복 원장	1964. 01. 01 ~ 1965. 05. 24
5대	서 창 재 원장	1965. 05. 25 ~ 1978. 02. 28
6대 ~ 10대	이 항 복 원장	1978. 03. 01 ~ 1995. 07. 16
11대 ~ 12대	이 지 호 원장	1995. 07. 17 ~ 2004. 11. 11
13대	이 진 자 원장	2004. 11. 12 ~ 2006. 06. 30
14대	이 용 면 원장	2006. 07. 01 ~ 2008. 11. 10
15대 ~ 17대	김 시 운 원장	2008. 11. 11 ~ 2020. 11. 10
18대	김 종 옥 원장	2020. 11. 11 ~ 현재

예산문화원 조직도



(사)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철원 / 회장 이일구

산업용 탈취제

· odor-kill 충남대리점 ·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대산산업주식회사

대표신창균

무료상담전화 010-6633-8123

대산산업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안길 34-32 TEL : 041-332-8123~4